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3085호 2019년 7월 2일 화요일

허태정 시장 무능행정에 더 무능한 대전시의회

공약사업 원점 또는 백지화 갈등만 부추겨… 대전시의회 '팔짱만'

데스크 시각

민선7기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1년 이후 시정 운영 미숙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대전시의회가 시장과 같은 당적을 지닌 의원들이 독식하면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청탁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고, 김인식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학력 위조 파문까지 맞물려 의회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전국 17개 시 · 도지사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허 시장은 42.2%의 잘한다는 긍정 평가를 받아 17개 시 · 도지사 중 1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에서 16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1계단 올라섰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 응답률은 5.6%, 표집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이 같은 결과를 미뤄볼 때 허 시장의 지난 1년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일각에서는 허 시장의 대전시정 운영에 대해 "여전히 구청장 시절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으로서의 그릇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1년 대전시정은 지역갈등의 연속과 지역경제 동력 상실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위치 선정을 두고 4개 자치구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 행정력을 낭비시켰고, 대전평촌산단 LNG 발전소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역시 지역사회 혼란을 부추겼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론화위의 당초 결과대로 부결되긴 했지만 민민(民民) 갈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허 시장의 갈등 조정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 인구정책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대전의 인구는 5월 말 현재 148만 4398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가장 큰 원인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9만여 명의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나가 인구감소가 컸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 주택공급과 교육환경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젊은 층의 부부들이 많이 이전했기 때문이다.

세종시 출범으로 후광효과를 기대했던 대전시로서는 오히려 세종시에 인구만 빼앗긴 꼴이 된 셈이다. 특히 청년 인구를 붙잡아 놓을 지역경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면서 인구의 탈 가속화를 부치기고 있다.

또 대전시의 재난대응 능력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올 초 대전에서는 A형간염과 홍역 등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시민 불안이 확산,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대전시민들로서는 또다시 대전시의 무능한 의료행정에 울분을 토해야 했다.

허 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도 심각하다.

대전시 공무원이 최근 근무시간에 시청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것이 알려져 지역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대전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이렇듯 민선 7기 대전시 허태정호(號)가 1년도 안돼 난파 직전인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대전시의회는 팔짱만 낀 채 먼 산 바라보듯 방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지난 1년 의정활동은 '존재감' 상실 그 자체로 표현될 수 있다.

대전시 여러 분야에서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대전시의회는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했고, 시민들 의견을 경청하는데도 소홀했다. 역대 대전시의회에서도 이렇듯 무능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출근 도장 찍는데 급급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석을 제외하고 전 의석을 싹쓸이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는 하지만, 의회 본연의 최소한의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도리이다.

시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의원들은 "나몰라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일각에서는 대전시의회가 시정 현안과 관련해 비판과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허 시장의 일련의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안 마련이 절실한데 여전히 여유만만이다.

한마디로 대전시의회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민선 7기 1년 허태정 시장 호(號)의 무능 행정함에 대전시의회의 더 무능함을 보면서 대전시민들은 그저 한 숨만 나올 뿐이다.

이정복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일부터 '총파업' 돌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부터 3일 동안 총파업 참여 인원이 5만 명을 넘을 것이라며 정부에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교섭 타결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상 최대 · 최장 파업을 앞두고도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교육감 중에도 책임지고 교섭 타결과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를 파업에 내몬 이는 정부"라면서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국정과제를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과 기본급 6.24% 인상, 다른 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또 교육공무직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각 지부도 전국 17개 시 ·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파업 돌입을 잇달아 선포했다.

김태선 기자

충남도, 6개 시 · 군에 6232억 원 유치

합동 투자협약 체결… 공장 신설 · 증설 · 이전 730명 신규 고용

충남도가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유망 기업 19개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한 경제-복지 선순환 시스템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승조 지사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한 6개 시 · 군 시장 · 군수 또는 부단체장, 최창우 대상라이프사이언스 대표이사 등 19개 기업 대표와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19개 기업은 천안 · 아산 · 당진 · 청양 · 예산 · 태안 등 6개 시 · 군 53만 7411㎡의 부지에 6232억 원을 투자, 공장을 신 · 증설하거나 이전해 730명을 신규 고용한다.

기업별 투자 내용을 보면, 환자용 식품과 혼합음료, 건강기능성 음료 전문 제조 기업인 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내년 말까지 천안2일반산업단지 내 1만 6148㎡의 부지에 36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전자응용제품 전문 제조 기업인 아이디시스템은 2021년 6월까지 풍세일반산단 2718㎡의 부지에 51억 원을, 친환경 건축 내장재 및 천연 대두접착제를 생산 중인 내추럴에코는 내년 6월까지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일원 3만 1547㎡에 170억 원을 투자해 각각 공장을 건립한다.

가전제품용 전력 반도체 등 전자부품 및 전자소재 전문 제조 기업인 이케이와 분무건조기 등 제조업체인 서강엔지니어링, 천공용 락툴 전문 제조 기업인 디마인드테크 등 3개 기업은 천안 북부BIT일반산단에 공장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이케이는 2023년 6월까지 1만 6528㎡에 315억 원을, 서강엔지니어링은 5000㎡에 30억 원을, 디마인드테크는 6600㎡ 부지에 4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2차전지 장비 업체인 이티에스는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단 1만 1169㎡에 2021년 말까지 151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전기차 부품 업체로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영화테크는 8000㎡의 부지에 2021년 6월까지 6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한다.

철근과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로 당진시 석문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환영철강공업은 석문산단으로 터를 옮긴다.

이 기업은 석문산단 24만 5000㎡의 부지에 2023년 말까지 3500억 원을 투입, 최신 설비를 갖춘 공장을 건설한다.

환영철강공업의 이번 투자 결정으로 석문산단은 분양률이 34.47%에서 40.5%로 상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속구조물 제작 업체인 DHMC와 화장품 관련 업체인 하이드로폼테크, 목재방부재 업체인 씨피켐 등은 당진 송산2일반산단 내에 공장을 신설한다.

전남 영암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당진에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는 DHMC는 내년 말까지 1만 6720㎡에 270억 원을, 하이드로폼테크는 올해 말까지 7987㎡에 140억 원을, 시피켐은 2022년 9월까지 7290㎡에 50억 원을 투자한다.

청양과 예산 등 내륙권에는 에스엠케미칼과 나무들, 남영산업, 에이원케미칼, 삼보오토, 영신에프앤에스 등 6개 기업이 총 593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와이퍼 조립과 병행해 플라스틱 고무 제조업을 추가하는 에스엠케미칼은 청양학당농공단지 7089㎡에 23억 원을 투자한다.

강화 목제품 업체인 나무들은 올 연말까지 14억 원을 들여 청양 운곡2농공단지 5513㎡에 공장을 증설하고, 용접철망 제조업체인 남영산업은 청양학당농공단지 1만 4053㎡에 6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워셔액과 부동액 등 제조업체인 에이원케미칼, 자동차 부품업체인 삼보오토와 영신에프앤에스는 예산일반산단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한다.

에이원케미칼은 내년 6월까지 3만 286㎡에 113억 원을, 삼보오토는 2022년 6월까지 2만 6446㎡에 348억 원을, 영신에프앤에스는 내년 7월까지 1만 3200㎡에 35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수도권 업체로 동물용의약품을 제조 중인 케어사이드는 2022년 말까지 502억 원을 투자, 태안 기업도시 내 6만 6116㎡의 부지에 공장을 이전한다.

도는 이들 19개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해 가동할 경우 해당 시 · 군에서 매년 발생하는 생산액 변화는 4101억 3600만 원, 부가가치 변화는 965억 18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장 건설 등에 따른 단발성 생산 유발 효과는 전국 1조 7656억 9400만 원, 충남 8398억 26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전국 6230억 8700만 원, 충남 3097억 5900만 원 등으로 전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생활을 지탱하는 기초가 여러분의 땀과 열정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기업인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라며 도내 투자 결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독일이 제조업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은 탄탄한 중소기업 덕분이다. 400만 개의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 탁월한 기업 1300개를 히든챔피언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창의와 도전의 기업가 정신을 통해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역량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행 ·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정환 기자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토론회 개최

국회물포럼, 7월 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7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물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과 김동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석해 개회사와 축사를 진행하고, 김길복 수도경영연구소 소장, 현인환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최승일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오현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구자용 서울시립대 교수, 최계운 인천대 교수, 염형철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해 상수도사업의 노후화 및 수도 사업 관리규정 등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수도사업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천에서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당장 눈앞의 민심을 진정시키고자 노후관 교체를 서둘러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노후관로를 교체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대처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발생할 것."이라며,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을 소홀히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이어 주 부의장은 "따라서 성급히 관로를 교체하기 이전에 상수관로가 어디에 얼마나 매설이 되어있는지, 상태는 어떠한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처를 위한 매뉴얼은 제대로 작성이 되어있고 또 숙지가 되어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상수관로를 포함한 많은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현명한 대책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힌다.

국회=김성구기자

대전시의회 예결특위원장에 우승호 의원 선임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1일 제5차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우승호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홍종원 의원(중구2,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다. 제8대 의회에서 두번째로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은 총 9명(이종호, 홍종원, 권중순, 김소연, 민태권, 구본환, 손희역, 문성원, 우승호)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특위활동을 하게 된다.

태안군의회, 변화와 혁신에 앞장

'열린 의장실' 운영 등 소통 시스템 개선 높은 평가

'변화와 혁신! 군민과 함께 하는 태안군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쉼 없이 달려왔던 제8대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2일 개원한 제8대 태안군의회는 김기두 의장과 박용성 부의장을 비롯해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 신경철 의원, 전재옥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이 태안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8대 태안군의회는 개원 후 9차례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열어 13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1년간 1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제·개정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의정활동 자료요구 159건을 비롯,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331건에 대한 처분요구 및 건의를 실시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의회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개원 이래 최초로 군의회 청사에 의회기를 게양하며 의정수행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군민과의 소통에 심혈을 기울여, '열린 의장실' 운영을 통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읍면 순회방문을 통해 군민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는 등 소통 시스템 개선이라는 혁신에 앞장서 군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그 결과 태안군의회는 지난 2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문에서 김기두 의장이 최우수상을, 박용성 부의장이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거두는 등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권의주의 탈피와 더불어 현장 속에서 군민의 의견을 빠르게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8대 태안군의회는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견제·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 군민의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기두 의장은 "지난 1년간 제8대 태안군의회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항상 군민 여러분이 주인임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대전서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대전시 서구의회(의장 김창관)는 제25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7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선용 운영위원장 외 7인의 요구로 개회되는 제251회 임시회는 첫날인 1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또한 ▲ 이한영 경제복지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월평동·만년동 정류장 설치' 건의안을 통해 월평역을 시외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대전정부청사터미널에, 만년역을 대덕대로와 만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서다운 의원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한 5분 발언을 통해 양성평등의 가치와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구청 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율과 인사 시 여성간부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서구청장에게 건의하였다.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의 당면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각종 안건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창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8대 서구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하여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공직자에게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모든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정환기자

대전 중구의회 예결특위, 결산승인 심사 마무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용 필요성 제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향)는 6월 26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와 사업집행의 문제점,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다.

그 결과 집행기관의 결산승인 준비미흡을 지적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심사보류하고,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가결하였다.

김옥향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며, "위원회에서 나온 문제점과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25만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정환기자

심상복의원,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활성화 적극 모색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 통해 행정의 변화 주문

아산시의회 심상복의원(복지환경위원장)은 제21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유산과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심상복 의원은 "최근 외암민속마을과 연계한 저잣거리 운영이 주민들 간 갈등양상으로 번지는 등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있느냐"며, "저잣거리 운영을 두고 최근 빚어진 주민과 상인, 행정간에 벌어진 마찰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외암민속마을은 아산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이와 연계하여 조성한 저잣거리 또한 장점을 최대 부각시켜 먹거리 뿐만 아니라 살거리, 볼거리도 제공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며 "이와 유사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저잣거리 내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로컬채소만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에 이어 "주말 외암민속마을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함에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의 재검토를 해달라"고 강조하는 등 외암민속마을 및 저잣거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집행부는 "많은 관광객이 외암민속마을과 저잣거리를 즐겨 찾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보건소 감사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자의 갑작스런 응급상황시 주변가족이 초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가족대상 응급조치 방법을 교육해 주길 바라며, 성인병(고혈압, 당뇨)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문자서비스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등 성인병으로부터 아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더민주당 충남도의회 원내대표에 김명선 의원

수석부대표 한옥동 의원 등 2기 새 지도부 9명 선임

지난 24일 선출된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선 원내대표(당진2)가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수석부대표에 한옥동(천안5) 의원, 부대표에 이영우(보령2), 김대영(계룡) 의원, 감사에 김형도(논산2) 의원, 총무에 여운영(아산2) 의원, 재무에 김은나(천안8) 의원, 대변인에 김영권(아산1), 황영란(비례) 의원이 각각 선임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명선 의원은 당진시 출신 의원으로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부지런한 의정활동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윤리특별위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제2,3,4,5,6대 당진시의회 의원, 제5대 당진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또한 민주평통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장, 한국 BBS충남당진지부 위원장, 당진시 유소년 야구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당진시의회 5선 의원으로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며 헌신해 왔다.

이날 김명선 원내대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과 지방의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에 화합을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현안문제 등 전반적인 당면사항들을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는 등 교량적 역할에 열심히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이승구 의장, 제8대 전반기 예산군의회 의장 취임 1주년 맞아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만드는 성과 이뤄"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예산군의회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승구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예산군의회는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산군의회'라는 의정방침으로 지난 1년동안 지역주민,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 동안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정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과 민원이 제기되는 곳을 일일이 확인하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는 등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면밀히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예산군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임시회 7회, 정례회 2회 등 총9회에 걸쳐 82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51건을 비롯한, 예산·결산안 10건, 동의안 8건, 기타안건 54건 모두 총 12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60건의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과 3회에 걸친 5분 자유발언, 4건의 결의안 채택을 통해 민생분야와 현장에서 확인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과 발언으로 민의를 대변 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과 군민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군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총 153건에 대하여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로 효율적인 군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승구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 주요기능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의결기관으로서의 심의 결정을 비롯하여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군정 감시, 예산결산검사, 군정질문, 주요현장답사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한층 더 나아진 열정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김성구기자

本社辭令

免, 의원면직
▲ 채 기 병
▲ 김 민 성

▲ 이 정 복
命, 천안취재기자

▲ 김 정 환
命, 천안취재기자

(7월 2일자)

당진시의회, 육성우 목장·자연세계 현장견학

산업건설위원회, 낙농축산업 발전 방향 논의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산업건설위원회가 1일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에 위치한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과 송산면 가곡리에 위치한 당진 자연세계 영농조합의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날 현장견학에서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들과 당진낙농축협(조합장 이경용)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성우 전문목장 시설을 둘러보고 사업현황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국 최초의 어린 젖소들을 위한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육성우 전문목장 현장견학을 통해 앞으로 당진시의 낙농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낙농가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견학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견학지인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은 송산면 간척농지 일대에 건립해 젖소농가가 입식 사육 걱정 없이 착유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됐으며 당진낙농축협이 약 100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2만 7657㎡, 건축면적 2만 4594㎡, 축사 5개동 규모로 건립해 지난달 14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사육규모는 동당 300두씩 총 1500두의 젖소 입식이 가능하다.

또한 당진낙농축협의 자회사인 당진 자연세계 영농조합법인도 방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자연세계가 최근 특허를 취득한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생산기술 등에 대한 사업현황을 보고 받고 세계 최초의 해외특허출원 및 생산설비 구축 등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육성우 전문목장과 자연세계는 최근 우리나라의 선진 낙농축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타지자체의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관내에서도 많은 방문자들이 견학을 해오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50만 자족도시 향한 마스터플랜 가동"

오세현 아산시장 민선7기 1주년 시정브리핑

민선7기 아산은 지난 1년 동안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을 기본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는 아산, 50만이 살아도 넉넉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미세먼지 걱정없는 친환경도시, 시민중심 먹거리 자족도시를 목표로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 달성의 초석을 다져왔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 "시정의 모든 문제와 답이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생활행정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 시켰다.

주민과 갈등 해소를 위해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찾고, 시민이 정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 시정 브리핑제 도입, 17개 읍면동에서 '시민과 함께 희망더하기 대화'를 개최하는 등 시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상시 교감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두고 있다.

깨끗하고 세련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등 가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을 하는 한편,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해 아산시의 정체성 확립과 이미지 향상도 꾀하고 있다.

▲ 민선7기 아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해 왔다.

특히, 타 지자체보다 한발 빠르게 중앙부처의 여러 공모사업을 위해 움직여 실제로 굵직한 국책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1,167억원 규모의 '온양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은 낙후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사업으로 선정된 '재활 헬스케어 힐링스파 다각화 사업'은 온천관광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고 '온천의 산업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110억원 규모의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선정 역시 원도심 재생의 핵심인 온양전통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적의 시기에 최대 규모의 재정을 적기 투입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의 조기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도 다졌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조 3천998억원에 달하며, 추경예산은 본 예산 대비 28.3%가 증가한 3,091억원 규모로 지난 5년 간 가장 큰 규모로 가장 빨리 편성됐다.

▲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하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탕정일반산단, 염치일반산단,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단 등 3개 산업단지가 착공돼 공사를 진행중이며, 이외에도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선장일반산업단지 등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총 9.2㎢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3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합동 기업유치지원단과 경제협력협의회 등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와 유망기업 유치 노력도 지속 중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첨단산업 육성도 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 중 하나다. 특히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사통팔달의 광역 및 지방 교통망 확보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더 큰 아산'의 밑그림도 그려놓고 있다.

서해안 복선전철, 제2서해안고속도로, 천안~아산~당진고속도로, 광역전철역 신설, 염성-용두 간 국대도 건설 등을 통해 들고남이 원활한 교통망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공유주차제 시행으로 올해 상반기에 381면의 공유주차장을 확보했다.

아산시는 금년 상반기 사업이 마무리 된 월천지구, 온천지구, 신정호지구를 비롯해 10곳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중 신인지구와 남산2지구는 우선 개발이 가능해 민선7기 임기 내에 준공될 예정이다. 아산탕정지구택지개발 3단계 사업이 2021년, 108만평 규모의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26년에 마무리되면 아산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세먼지 저감 등을 통해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정책방향이다.

지난 1년간 아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수소버스 시범도시 선정, 기후변화 전담조직 신설, 15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친환경 에너지 단지 조성, 미세먼지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대, 대기오염 측정망 및 대기질 정보알림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주민과 함께하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 반딧불이 복원 · 보전 추진, 공공건물 패시브 하우스 도입, 소각장 폐열 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축분뇨 에너지원 사업 등 민선5 · 6기에 추진해온 친환경사업을 민선7기에도 지속 추진으로 아산시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중이다.

▲ 시민 중심 먹거리 자족도시 구축도 민선7기 아산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다.

아산시는 먹거리의 생산 · 가공 · 유통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건강한 로컬푸드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아산시 푸드플랜 2022'로 이름 붙인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 · 공급 등 지속가능성 확보와 함께 농촌의 안정적 판로를 통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선7기 아산은 지난 1년 동안 '더 큰 아산'의 기틀을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2년차에는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문화, 복지, 교육이 어우러진 내일이 더 행복한 아산을 만들고자 온 힘을 쏟고 있다.

▲ 지역과 함께하는 시민중심 교육도시를 구현하는 것은 민선7기 2년차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다.

도시를 발전시키는 건 사람이고, 사람을 키우는 건 교육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청소년 육성,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발전과 세계를 호령할 역량 있는 아산 사람을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지속가능한 교육지원정책 실행을 위한 재단 설립, 진로코칭 · 멘토링 등을 통한 청소년 역량 조기 발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탐방기회의 획기적 확대, 성적이 아닌 특기 위주의 장학생 선발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산시는 이러한 교육지원정책의 방향 전환을 통해 '아산에서 태어나서', '아산에서 자라고 배워', '세계와 함께 할', '아산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일상이 행복한 시민, 누구나 찾고 싶은 아산을 위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도 해 나가고 있다.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유입되는 아산시를 위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아산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특히, 아산문예회관 건립 기반 구축과 함께 현충사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벨트를 조성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야기가 있는 둘레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여가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온천 도시 아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온천을 이용한 재활 헬스케어 힐링산업 기반 구축 등 스마트 건강도시 아산의 모습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외암민속마을, 영인산휴양림 등 관내 풍부한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관광벨트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한 1인 1악기 갖기, 1인 1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간다.

▲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 아산'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이자 관심사는 복지란 생각 아래 아산시는 그동안 다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도시 아산이라는 가치로 '나눔 성장 행복도시 아산' 구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산형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사업, 아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찾아가는 행복키움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이를 통한 예방복지를 실현해가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접목시켜 아산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어르신들을 위한 아산효세트 지급,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안전 지원, 노인 및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추진,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복지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탈빈곤 지원 등의 복지시책도 펼치고 있다.

▲ 민선7기 아산시는 '성장 속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50만 자족도시를 향한 마스터플랜도 준비되어 있다.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조성하고, 산성, 하천, 저수지 등을 활용한 아산둘레길을 개척해 시민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곡근린공원을 시민문화공간으로 확대하며 아산의 자랑인 은행나무길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인근 곡교천을 복합체육여가공간으로 조성한다. 영인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계획도 추진중이며 시민의 염원을 담은 아산문예회관 건립 마스터플랜도 세워놓았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민선7기 아산은 성과를 위해 서두르거나 결과에만 집착해 사업을 그르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칠 것이다"며 "원칙과 기준에 따른 행정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34만 아산시민과 1300여 아산시 공직자는 '원팀'이며 시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아산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 기자

●동 정●●●

정비공사 준공식 개최

황인호 동구청장= 2일 오전 11시 식장산문화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준공식을 개최한다.

대전시장 자치구 정책투어

박용갑 중구청장= 2일 오후 2시 효문화마을관리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대전광역시장 자치구 정책투어' 동행.

1년 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회

장종태 서구청장= 2일 오후 5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1년 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회에 참석한다.

다함께 꿈꾸는 마을복지학교

정용래 유성구청장= 2일 오후 3시 전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다함께 꿈꾸는 마을복지학교에 참석한다.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박정현 대덕구청장= 2일 오후 4시 구청 구민의 사랑방에서 2019년 대덕구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

대전시 최초 지역화폐 대덕e로움 5일 출시

박정현 청장"지역경제 활성화 · 공동체 강화… 대한민국 경제에 파란 일으킬 경제모델 될 것"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 최초로 발행하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오는 7월 5일에 공식출시 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오늘 이 자리는 대덕경제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언하는 자리"라면서,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내 삶을 바꾸고 대덕경제의 지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희망의 씨앗이다. 돈이 도는 선순환경제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를 강화시켜, 대전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 파란을 일으킬 경제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덕e로움은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덕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다.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0% 이상인 137개 자치단체가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2018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이 2.13%, 관광객의 지역내 소비지출이 3.7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전국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전시에서는 대덕구가 최초로 발행한다.

박 구청장은 "우리 구는 사업장 근로자 평균소득은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지만, 지역평균소득은 3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낮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해 소비-생산-일자리가 증가하는 선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덕e로움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덕e로움이라는 명칭은 818건의 공모 제안을 대상으로 3차례 심사를 거쳐 선정됐고,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지역화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구청장은 "올 해 발행액 규모는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100억 원 이상을 발행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하반기 출시로 인해 그렇게 목표액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구청장은 "발행형태는 종이상품권이 지닌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와 가맹점을 일일이 모집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매년 발행비가 소요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불식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대덕e로움은 오는 7월 5일 공식 출시되며, 시범운영을 위해 7월 2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 개인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이고, 상시 6%, 출시 · 명절 등 특판 시 10%의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사용한 금액의 30%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연회비와 발급수수료는 없다. 기업과 단체는 한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할인혜택 없이 구매해야 한다.

구매는 대덕e로움 전용앱이나 판매 대행처(금융기관)에서 가능한데, 휴대폰에전용앱을 다운받아 카드를 등록하고 본인 은행계좌에서 이체해 충전하면 할인율에 따라 구청에서 보전하는 할인보전금이 지급된다. 휴대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내고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수령은 전용앱이나 금융기관, 구청 · 동행정복지센터 · 도서관 등에서 가능하며, 카드 충전은 대덕e로움 전용앱과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충전한 카드는 대덕구 내 IC카드(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규모점포 · 유흥업소 · 본사 직영점 · 사업장 소재지가 대덕구가 아닌 점포 등은 제외된다.

김태선 기자

박용갑 청장 현장행정 추진

1년간성과평가 · 구민 행복한 삶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주문

박용갑 중구청장은 민선7기 2년차를 맞이하는 1일, 오전에는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추진 중인 사업을 짚어보고 오후에는 주민의 삶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회의에선 간부공무원과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청장이 민선 5기부터 추진했던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의 슬로건을 완성할 수 있는 뿌리공원 2단지 사업이 7억 5천만원의 설계감리비가 국비로 확보됐다. 지난 달엔 국 · 시비 일부를 교부받았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역사 속에 묻혀있던 선화동 만세운동을 100년 만에 재현한 점도 큰 성과로 꼽혔다. 한국독립운동사에 기록된 내용을 고증해 지난 4월 1일 1천여명의 주민과 함께한 만세운동으로 지역 내 독립운동 정신이 더욱 고무됐다고 평가했다.

박 청장은 150만 대전시민의 큰 관심사였던 새 야구장이 객관적 평가결과 한밭종합운동장 부지로 선정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야구장 인근 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돔구장으로 건설 또는 대전시에서 구상 중인 원도심 상생주차장을 한밭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된 쾌거를 이룬 빈집정비사업은 확대 실시를, 중촌동 · 유천동 뉴딜사업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아이키우기 행복한 중구' 시책을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됐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 수당,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 긴급보육 바우처 초과시간 사용분 지원 등에 머무르지 말고, 체감도 높은 입체화된 시책 개발을 당부했다.

끝으로 독립운동가 홍보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26일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 추진에 대한 이견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보류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하반기에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에 대한 대전시 투자심사가 통과된 만큼, 9월 개최예정인 제221회 임시회에서는 결산승인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며 회의를 맺었다.

오후 첫 일정으로는 지난 민선7기 첫날과 마찬가지로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행정을 펼쳤다. 주민과의 대화로 의견을 수렴하며, 환경관리요원과 함께 태평동과 산성동 골목골목을 다니며 주민들이 내어놓은 폐기물을 해체해 차에 실었다. 박 청장은 초심을 잃지않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매월 한차례씩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오고 있다.

김태선 기자

주요정책 추진과정 공개로 행정신뢰도 높인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8건 선정… 정책 내용 및 참여자 실명 공개

대전시가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등 행정신뢰도 높이기에 나섰다.

대전시는 1일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8건을 공개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지난달 17일 열린 대전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시는 2013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지난달 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등 28건으로 '대전광역시 정책실명 관리규칙' 선정기준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50억 원 이상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사업' 중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시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되며, 앞으로 추진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정책추진 과정을 시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운영은 우리시가 수립 ·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는 만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회적 협동조합 더청춘 업무협약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1일 중구 대흥동 더청춘 회의실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더청춘과 시니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적협동조합 더청춘과 함께 시니어들의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 체계 구축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 기관은 50+ 인생 재설계 교육 사업 등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상호 간 협업하기로 합의했다.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더청춘과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전 시니어들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남녀노소 대전 시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평등하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광고문의
(042)538-3030

서구 2019년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발대식과 함께 안전교육 실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발대식과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은 147명의 신청자 중 선발된 54명은, 갑천 누리길 자연희망 가꾸기, 걷고 싶은 도로정비, 전통시장 주정차관리 및 환경정비, 관광지 환경관리, 보행안전지도 워킹스쿨버스 등 11개 사업에 배치된다.

선발된 54명은 오는 10월까지 7개 부서, 20개 동에서 근무하게 되며,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에 선발되지 못한 취업 희망자들에게도 상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종태 청장은 발대식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일자리창출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4개월 동안 안전사고 없이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대전시소' 시범운영 연장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대전시소'의 시범운영기간이 연장된다.

대전시는 '대전시소'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해 온 시범운영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소'는 시범운영 시작 이후 하루 평균 2건 이상, 모두 75건의 자유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4건은 실무부서에서 정책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호수공원 조성 제안, 무장애 통합놀이터' 의견은 수용으로 부서답변이 이뤄졌다.

대전시소의 '시민제안'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시민 30명 이상이 공감하면 실무부서가 정책 가능성을 검토하고, 10일 안에 채택 여부를 공개한다.

기존엔 시민이 '대전시에 바란다(국민신문고)'에 정책 관련 의견을 내면 이후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다수 시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 시행 여부도 바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전시가 정책을 입안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시가 제안합니다' 코너는 시범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전시는 대전시소의 시스템 품질을 시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안정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시민과 소통하는 '대전시소'의 '대전시가 제안합니다'에서 청년들에게 자율적 예산 편성 권한 부여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김태선기자

직장 내 괴롭힘 'NO' 직장 내 행복함 'YES'

롯데백화점 대전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윤리강령 지정 · 선언식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지난달 29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NO, 직장 내 행복함 YES'를 윤리강령으로 지정하고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손을경 대전점 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보호조치 교육을 이수하고 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한편,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직원들과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열어두고 근무환경 개선 및 여가활용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데 앞장서며 워라밸 대표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손을경 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통해 전 직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유성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아파트 · 상가 등 분양권 · 임차보증금 압류절차 진행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납부 회피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7월 중 체납자가 보유한 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권과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압류절차 진행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건축물 분양권 취득관련 자료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우선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 징수절차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액임차보증금을 보유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생활형편 등을 감안해 상황에 맞는 단계적 징수절차를 추진한다.

신상익 유성구 세원관리과장은 "청와대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무'의 고의 면탈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고,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회피 수단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악의적 체납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농협 창립 제58주년 기념식

서부농협 '총화상' 수상

대전 서부농협(조합장 임헌성, 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농협 창립 제58주년 기념식'에서 총화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농협 총화상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 · 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 등을 대상으로 임직원 상호간 인화단결 및 농업인에 대한 친절봉사자세, 농업인의 실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상으로 전국 1118개 농 · 축협 가운데 16개 농협에만 주어지는 명실상부한 농협 최고 영예의 상이다.

서부농협은 임헌성 조합장의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 비료, 퇴비 등 영농자재 지원,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취약 농가 일손돕기 등 농업인 실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매년 취약계층을 위해 서구청에 쌀을 기탁하고,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경영평가 1등급, 클린뱅크를 달성해 조합경영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을 인정받아 농협최고의 영예로운 총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농협임을 인증 받게 됐다.

임헌성 조합장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며, "이 모든 결과는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과 애정, 그리고 저희 농협을 믿고 애용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내실있는 경영과 조합원의 복지증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조합원과 고객에게 보답하는 서부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민선7기 2년 차 3960억 투자유치로 힘찬 출발

당진시-환영철강공업(주)- ㈜DHMC 등 4개 기업과 협약 체결

당진시가 민선 7기 2년 차 첫 날인 7월 1일 3,96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당진시는 1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 합동 투자협약식에서 시는 환영철강공업㈜와 ㈜DHMC, ㈜하이드로폼테크, ㈜씨피켐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7일 석문면 삼화리에 위치한 현 당진공장을 이전키로 시와 협약을 맺은 환영철강공업㈜는 1일 협약에 따라 3,500억 원을 투자해 석문국가산업단지에 24만 5000㎡ 규모로 새 공장을 건설을 추진한다.

환영철강은 2021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준비해 2023년에 신규 공장을 가동할 계획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석문산단의 분양률은 5%가량 상승한다.

환영철강을 제외한 ㈜DHMC, ㈜하이드로폼테크, ㈜씨피켐은 송산 2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한다.

세 기업의 투자 규모는 ㈜DHMC 270억, ㈜하이드로폼테크 140억, ㈜씨피켐 50억 원으로, 주생산품은 각각 자동차·건물 철강 제품과 화장품, 청화 아연이다.

특히 ㈜하이드로폼테크는 중년 여성인력 80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화장품 분첩 등을 생산하는 기업 특성상 철강과 화학 중심의 당진 산업구조의 다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민선 7기 2년 차 첫 날에 투자유치에 성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당진 경제의 토대를 다질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이전과 신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업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서산시 농산물 소비부진 해소에 팔 걷어

공무원 지역 농산물 더 팔아주기 운동 전개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최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팔을 걷었다.

서산은 기후와 토질 등 자연조건이 원예농산물 생산에 적합해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금년 들어 일조량, 강우 등 기상호조에 힘입은 유례없는 풍작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직원들이 마늘 1접, 양파 1망, 감자 1박스 더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판매확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선 관내 430여 기업체에 지역 농산물 구매를 호소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우체국 등 2개 쇼핑몰에 판매기획전을 열어 구매 고객에게 1,500원에서 최고 2,500원까지 할인 쿠폰도 지급하고 있다.

감자는 전국 롯데마트 120개 매장에 70톤의 1차 물량 납품을 완료하고 추가 납품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농심에 660톤, 오리온에 250톤의 물량 납품을 위해 선별작업 중이고, GS리테일과도 60톤 규모의 납품을 협의 중에 있다.

특히, 하락 폭이 큰 양파는 국내시장에서 완전 격리를 위해 1,800톤의 물량을 대만 등의 바이어와 막바지 협상 중에 있으며, 관내 식당 등 요식업소에 양파 구매 확대도 요청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을 통한 난지형 마늘 수매 확대는 물론, 마늘법인을 통해 7월 중순 한지형 마늘 200톤을 수매하기로 했고, 계약 물량에는 kg당 2천원의 장려금 지급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판촉행사도 추진한다.

지난 6월 초 고양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성공적인 마늘 판매행사에 이어 김포농협, 고양농협, 서울 상생상회 등과 판촉행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7월 12일부터 3일간 예정되어 있는 서산6쪽마늘축제 기간에도 농협대전유통에서 10일간의 특판 행사, 대전 금요장터 참가, 충남도청 공무원 대상의 판촉행사도 열기로 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아직까지도 판매보다 생산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정부 정책이 아쉽다."며, "생산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참고로, 서산시의 올해 감자생산 예상량은 1만7여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양파와 마늘도 각각 3만여 톤과 1만 4천여 톤으로 전년대비 10~15%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임직원 대전공판장 경매현장 체험

서대전농협, 농산물 제값받기 일환

서대전농협 임직원 40여명이 송용범 조합장(왼쪽 두번째) 취임 100일을 맞이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및 농산물 제값받기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농협대전공판장을 방문해 경매현장 체험과 함께 출하 농산물 마케팅 행사를 실시했다.

서대전농협은 조합원에게 우수 농산물 생산 교육 및 생산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름, 표고버섯, 호박, 부추, 감자, 방울토마토 등 60여가지 품목을 농협대전공판장에 전속으로 연간 약 15억원 정도를 출하하고 있다.

송용범 조합장은 "서대전농협 관내에서 조합원들이 땀흘려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며, "앞으로도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대전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청양군 귀농귀촌인 한마음 워크숍 열려

청양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오형근)는 지난달 28일과 29일 내빈, 지역민, 귀농귀촌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양군 고추문화마을 고추박물관에서 2019 귀농귀촌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틀간의 워크숍은 귀농귀촌 역량강화 교육, 귀농귀촌협의회 업무보고, 지회별 단합대회, 체육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청양군은 귀농귀촌 관련 사업을 시작한 지 11년째를 맞아 안정적 운영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간 군내 귀농귀촌 인구는 5000여명에 이르렀으며, 대부분 무난히 정착해 상당한 수준의 영농소득을 올리는 등 질적 성장 추세에 있다.

이날 김돈곤 군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정방향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득보장의 열쇠인 푸드플랜 사업,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등 모든 사업에서 귀농귀촌협의회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KT&G '릴 베이퍼' 전국 주요 대도시로 판매지역 확대

KT&G(사장 백복인)가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lil vapor)'와 전용 카트리지 '시드(SiiD)'의 판매지역을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한다.

지난 5월 27일 출시된 '릴 베이퍼'와 '시드'는 현재 서울·부산·대구지역 CU편의점 3,577개소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오늘부터 판매처가 인천·대전·울산·광주 등 4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시 및 지방 25개 도시의 CU편의점 4,591개소가 추가되어 총 8,168개소로 늘어난다.

'릴 베이퍼'는 액상 카트리지 '시드'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CSV(폐쇄형시스템) 타입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다. 특히, 1개비 진동 알림 기능인 '퍼프 시그널'을 적용해 사용자들이 흡연량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슬라이드를 내리면 바로 작동 가능해 첫 모금부터 풍부한 느낌을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마우스커버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입술이 닿는 부위의 위생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전용 카트리지는 일반 담배 맛의 '시드 토바(SiiD TOBAC)', 시원한 맛의 '시드 아이스(SiiD ICE)', 이국적인 맛의 '시드 툰드라(SiiD TUNDRA)' 등 총 3가지 종류이며, 한 개의 카트리지로 담배 한 갑 분량 흡연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확대되는 지역에도 출시 기념으로 제공된 '휴대용 충전 파우치'를 구매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휴대용 충전 파우치'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항균 기능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감을 얻고 있다.

KT&G 관계자는 "'릴 베이퍼'는 시장의 관심과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었다"며 "서울 이외 소비자들 또한 제품에 대한 구매 니즈가 높아 판매지역 확대를 결정했으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과 소비자 반응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판매처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철도규제 개선 국민참여 개선제안 공모 개최

철도공단, 일자리 창출·국민 삶의 질 향상 아이디어 공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참여 철도 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1일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국민 생활 불편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생명·안전·환경 규제 개선사항, 총 4가지이다.

공모 제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www.kr.or.kr)의 공모전 접수 게시판을 통해 1일부터 22일까지(3주간)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해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해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완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시발주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사비 지급·계약기간 연장 반영 등 220여 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계약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공단 업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민생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혁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의료제품 관련 행정·제도 배워요

지역약대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식약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제품 제조현장을 체험하는 '지역 약대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지역 약대생 교육프로그램은 약대생 3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올해는 다른 지역의 약대생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식약처 소개 및 진로 안내 ▲의료제품 개발과 허가 ▲의약품 제조·유통 관리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의 이해 ▲의료제품 제조업체 현장 체험 등이 진행된다.

현장 체험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인 보령제약(예산)과 화장품 제조업체인 보령메디앙스(예산)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약대생들이 식약처 업무를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어 지역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대전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042-480-8764)에 전화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송병배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공주시 공주밤 가공·체험사업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6월 27일 공주시 산림경영과에서 공주밤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주밤 산업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공주시 관내 밤 가공업체 종사자와 체험농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과정은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5분야 총 3회에 걸쳐 전문 인력육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역량강화교육은 6차 산업 인증실무와 스피치훈련, 홍보마케팅 및 스토리텔링, 신식품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카카오마케팅에 관한 역량강화 교육 등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김기형 산림경영과장은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관련 사업자의 수익창출과 현장에서 직접 접목 할 수 있는 역량교육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 공주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맞춤형 위주 교육으로 공주밤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롯데마트 노은점, 맥주는 전용잔에 마셔야 '제맛' 롯데마트 노은점 주류코너에서 직원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 줄 맥주와 전용잔을 조합한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3일까지 인기 수입맥주 브랜드 호가든, 스텔라 아르투아, 코젤라거, 구스아일랜드 등이 내놓은 전용잔 패키지 행사와 함께 맥주에 곁들일 치킨, 견과류 등 다양한 안주류를 판매한다.

오세현 시장, 공무원 현장행정 격려

오세현 아산시장은 1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한 7월 확대간부회의 시 "민선7기 취임이후 현장행정을 강조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조해 왔다. 오 시장은 "민간사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업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점검에서 꼼꼼히 사업진행을 짚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챙기게 된다"며,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또, 행정의 전례답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시장은 "5년 10년이 지나도 기존방식대로 유지하는 사업들이 많다.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시대상황과 행정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답습적 행정이라는 양날의 칼이 된다"며 그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둔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로 들었다.

시는 과거 지역인재 타지역 유출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타 지역과도 평준화 되고 미래장학회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약 90%의 지역 내 진학률을 보이며 안정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시는 시대변화에 맞는 다음 교육지원 정책으로 스스로 앞가림 할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갈 힘을 기러 주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 아산 행복교육 비전으로 '현재가 행복한 , 내일이 희망찬 교육 도시' 아산의 비전과 함께 '아산의 미래, 교육으로 통하다'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도시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인성 함양 ▲진로탐색 역량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핵심 과제로는 ▲청소년 재단 설립 ▲진로코칭센터 운영 ▲청소년 시설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사업 확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6개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설동호 교육감, 7월 월례조회… 창의 · 융합형 인재교육 등

"창의성 갖춘 학생 길러 내는데 힘 써달라"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7월 1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7월 월례조회를 갖고 취임 2년차를 맞아 "대전의 학생들이 더욱 행복하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능한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창의 · 융합형 인재교육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강조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10대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 중 ·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시행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와 석면, 고화소 CCTV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교육부, 감사원 등이 주관한 재정운영 평가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학생 교육력 등 다방면에서 대전교육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그동안 대전교육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학생 중심의 참여형 발표 · 토론교육과 독서 · 놀이통합교육 및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메이커 · S/W 교육 등 과학도시 대전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차츰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월례조회에서는 2019.1.1.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채은영 교육연구사가 연구소의 설치과정 및 운영방향 발전계획을 발표했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교직원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이 전수되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나날 수 있도록 배려의 교육복지 및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미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공주시,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관내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소형 ·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의 LPG 신차를 구입하면 5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9~15인승 이하의 승용 · 승합 경유차 중 신청일 기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공주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로, 시는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으로 총 14대를 선정해 대당 500만원씩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 · 공고에서 해당 공고문에 첨부돼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041-840-8578)로 접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보령 정낙춘 부시장 "보령을 대한민국 해양 메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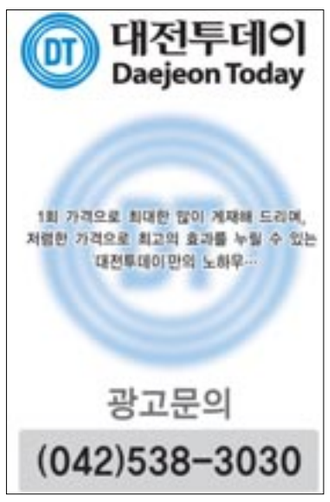
1일 직원모임에서 보령시 정낙춘 부시장 취임인사

7월 1일자로 보령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정낙춘 부시장이 7월중 직원모임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정낙춘 부시장은 지난 1981년 보령군청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고, 1988년 충청남도로 전출하여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장,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31년 만에 고향인 보령으로 금의환향했다.

특히, 정 부시장은 보령시 웅천읍 출신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은 물론,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지역발전의 응집력을 한 차원 더 높일 것이란 기대와 함께, 약 3년간 충청남도에서 해양정책 업무를 맡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보령시의 해양 발전에 날개를 달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정낙춘 부시장은 보령시 공무원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일한 만큼 성과로 이어질 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보령시와 충청남도, 중앙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김동일 시장님의 말씀처럼, 항상 솔선수범하고 노력해 나가겠으니, 보령시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기자



충남교육청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생존수영 배우기"

연말까지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기르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내 전체 초등학교 409개교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6월말 현재 6만1120명이 교육에 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생존수영 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학생 안전체험교육 필요성에 따라 2017년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총 51억 원을 편성해 약 10만2000여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사업예산은 교육부가 26억 원, 도교육청이 23억 원, 충남도가 2억 원을 분담했다. 도내 모든 2~6학년 초등학생들은 학교 실정에 따라 10시간의 교육에 참여하게 되며, 생존수영으로 엎드려 떠있기, 누워 떠있기 등 자기구조법과 생활용품 또는 주변 사물을 활용한 기본구조법을 배우게 된다.

올해는 특히 장거리 이동과 시간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형 생존수영수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8개교에서 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행복청, 행복도시건설 주요사업 정책실명제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26건)을 선정하여 6월 28일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지난 6월 25일(화) 행복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였으며, 국정과제, 2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주요 연구용역 등 26건으로 사업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 유치',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정과제 관련 사업 3건 ▲ 복합편의시설, 광역도로(6개 노선), 세무서, 경찰서, 복합커뮤니티센터(4개), 광역복지지원센터(2개), 아트센터,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등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사업 17건 ▲'2-4生 중심상업업무지역 리뷰 및 기능조정 전략 수립', '행복도시 도시계획 관리체계 고도화',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관리 시스템 콘텐츠 연구' 등 '19년 정책연구용역 사업 3건 ▲그 외 중점관리사업인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3차 변경', '금강보행교 건설공사' 등 3건

세종=김태선기자

대전농협, 금년 상호금융 창립 50주년 맞아

상호금융 예수금 8조 달성탑 수상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는 대전농협 상호금융 예수금이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8조원을 달성했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상호금융 예수금 8조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대전농협 관내 14개 농 · 축협의 상호금융 예수금 8조, 상호금융 대출 6조를 보유하게 됐다.

농협상호금융은 1970년대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고리채 해소와 양질의 금융서비스 및 농업자금 제공으로 농업인 조합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차별 없는 지역종합금융 센터로 자리 매김하며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대전농협은 상호지원자금 · 도농상생기금 출연, 출하선급금 지원, 직거래장터 운영, 자매결연 교류, 지역사회공헌활동 뿐만 아니라 햇살론 등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써 도시농협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용석 본부장은 "상호금융 예수금 8조원 달성은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달성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편,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통해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천안시, 국내 우량기업 6개사와 투자협약 체결

966억여원 투자로 120여명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충남 천안시는 1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우량기업 6개사와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이날 양승조 충남도시자를 포함한 도내 5개 시장 · 군수, 19개사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합동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천안시에 투자하는 6개사는 관내 7만8540㎡부지에 966억여원을 투자하고 120여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낼 전망이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정수기 · 청정기 메인 보드(Main PBA) 등 전자제품 콘트롤러 제조 전문 '아이디시스템'(대표 김태현) ▲친환경 건축내장재 및 천연접착제 등을 생산하는 '내추럴에코'(대표 백상균) ▲특수용도식품, 혼합음료, 건강기능성 음료 제조업체인 '대상라이프사이언스'(대표 최창우)이다.

또 ▲가전제품용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케이'(대표 서정원) ▲분무건조기, 소스 제조설비, 분쇄기 제조 등을 생산하는 '서강엔지니어링'(대표 손원경) ▲천공용 락 툴 산업기계장치를 생산하는 '디마인드테크'(대표 정노조)가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정수기와 청정기의 메인보드(Main PBA) 등 전자응용 제품을 제조하는 아이디시스템은 천안시가 제공한 풍세면 풍세일반산업단지의 입지조건과 청정기 산업의 활황에 힘입어 사업장 증설을 계획했다. 올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풍세일반산업단지 내 2,718.8㎡ 부지에 총 51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14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친환경 건축 내장재와 천연 대두접착제 등을 제조하는 내추럴에코는 오는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70억원을 투자해 병천면 송정리 일원 3만1547㎡ 부지에 공장을 조성, 30여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환자용 식품 등 특수용도식품, 혼합음료, 건강기능성 음료 전문 제조 기업 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천안시가 제공한 제2일반산업단지의 입지조건과 사업 활황으로 오는 2020년 12월까지 총 360억원을 투자해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1만6,148.10㎡ 부지에 공장 증설로 3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가전제품용 전력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전자소재를 제조하는 이케이는 천안시가 제공할 예정인 북부BIT일반산업단지 1만6,528㎡ 부지에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315억원 투자로 공장을 조성해 신규인력 5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서강엔지니어링은 분무건조기(SPRAY DRYER), 소스 제조설비, 분쇄기 등 음 · 식료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북부BIT일반산업단지 내 5,000㎡ 부지에 총 32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며 11여명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게 된다.

정밀 기계부품 천공용 락 툴 전문 제조 기업 디마인드테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부BIT일반산업단지 내 6,600㎡ 부지에 총 4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조성해 15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천안=이정복기자

한국수자원공사, 7월31일까지 대청호 수변자원 활용

생태탐방길 스카이워크 디자인 공모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와 옥천군은 7월31일까지 대청호 수변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대청호 생태탐방길 스카이워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누리는 에코힐링'을 주제로 옥천군 녹색탐방로 내 스카이워크와 쉼터공간을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계획됐다.

또한, 응모작품은 도면 제출이 가능한 국민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7월 24일 부터 31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대표 누리집(www.kwater.or.kr)에 지정된 양식으로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심사결과는 한국수자원공사 누리집에 8월 19일 발표 예정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총 15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박봉관기자

전통시장 서비스러닝센터 중앙시장 오픈

한남대, 7월1일 대학과 전통시장 상인과의 멘토-멘티

한남대학교 전통시장 서비스러닝센터가 대전 중앙시장에 문을 열었다. 서비스러닝센터는 대학생들이 전공지식을 전통시장에 접목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청년창업 및 취업지원 연계 등의 거점 센터가 될 전망이다.

1일 대전중앙시장 내 한남대 전통시장 서비스러닝센터에서는 한남사회혁신원 주최로 오픈식을 가졌다. 이덕훈 한남대 총장,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박황순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장 등을 비롯해 전통시장 전문가 및 청년몰 참가 학과 학생 및 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남대 전통시장 서비스러닝센터는 지난 2018년 3월 한남대 한남사회혁신원에 전통시장지원센터를 신설한 이후 한남대와 대전중앙시장과의 업무협약 체결, 멘토링지원시스템 구축의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전통시장 서비스러닝센터 설치가 최종 합의돼 문을 열게 됐다. 서비스러닝센터 설립을 통해 전통시장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중앙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제대로 추진해야"

한국장애인부모회-시민T.F연대,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정기영)와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전국 시민TF연대(상임대표 김동석)는 1일 한국장애인부모회 대전지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보건복지부 추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전국시민 의견수렴 및 전달, 각 권역별 건립사업에 대한 연대 활동,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 및 진행상황 홍보,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한 연구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정기영 한국장애인부모회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전국시민T.F연대 공동대표직을 수락하며 "국정과제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전국의 장애인가족과 함께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동석 전국시민TF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적극 연대해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연대가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업무협약 후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 성명서의 대정부 요구사항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예산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총 건립예산의 국비 50%이상을 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본래 약속대로 전국 9개 권역에 병원을 설립, 장애아동 치료, 교육, 돌봄 실태와 재활치료 필요 수요를 제대로 조사, 권역별 병원으로서 규모와 기능을 갖춘 제대로 된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상반기에 실시한 경남권, 전남권 공모에는 단 한 곳도 지원한 지자체가 없어 공모가 무산되었으며 하반기에 재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재공모의 성공 여부는 건립비 및 운영비 지원 등 보건복지부의 공모조건 변경 여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전에 전국 최초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병상수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병원 설립의 취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는 기획업무용역에 들어갔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민관협력 자문협의회를 통해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전국 시민T.F연대는 시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해 지역별 시민TF를 구성하고 연대한 단체이다.

이정복기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

공주소방서, 모두의 안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이 현대 주거 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화재 시 소방 활동 구역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신축하는 100세대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구역에 주·정차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독립유공자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보령소방서, 관내 독립유공자 15가구 대상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15가구를 대상으로 독립유공자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독립유공자 소방안전서비스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소방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특히, 보급 및 설치에 이어 각 기구마다 사용법과 안내, 화재 시 대피요령 등의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김근제 소방서장은 "작지만 안전에 꼭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제공으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를 위한 안전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기자

류일희 제4대 청양소방서장 취임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1일 오전 9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류일희 청양소방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1964년 공주 출생으로, 지난 90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충남소방본부 종합상황팀장, 충청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 제4대 청양소방서장으로 부임했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평소 합리적이고 강한 업무추진 능력은 물론 재난현장에서 정확하고 빈틈없는 통솔력을 갖춘 소방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직원들에게 능동적인 행동, 자율과 책임 있는 일 추진을 당부했다.

류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양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가족의 힘을 모을 것이며, 청렴한 공직사회의 정착 등 앞으로 군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소방조직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집중호우 침수취약도로 현장중심 대책 수립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여름철 대비 침수 취약도로를 일제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대책을 수립했다. 여름철 돌발 집중호우로 하천변 하상도로, 지하차도 등의 수위 급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보 발령 시부터 통행차량을 우회하도록 할 예정이다.

새마을지도자신인동협의회, 6월 새마을이동빨래방 실시

대전동구새마을회 소속 새마을지도자신인동협의회(회장 유영환)에서는 지난달 24일~28일 5일간 동구 하람복지관에서 이불세탁 도움을 위해 운영하는 새마을이동빨래방 사업을 실시했다.

청양읍 십자로 회전교차로 설치 반대 69%

주민자치회, 직접투표로 사업 찬반의견 제시

청양군 청양읍주민자치회(회장 이재후)는 지난달 28일 청양읍 문화체육센터에서 청양읍민 누구나 참여해 지역현안을 토론하고 주요 추진사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청양군 최초로 개최했다.

이날 총회 투표에는 모두 339명이 주권을 행사했으며, 이들은 주민자치회 분과별 위원들이 읍내 26개 마을을 순회하며 수집한 주민의견 중 총회에 상정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찬반 및 우선순위를 전자투표방식으로 결정했다.

사업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는 ▲청양문화원 앞 십자로 회전교차로 설치 찬성 31%, 반대 69% ▲쌈지주차장 유료화 찬성 53%, 반대 47% ▲원앙공원 주차장 전환 찬성 30.7%, 반대 69.3%로 나타났다.

사업추진 우선순위 결정투표에서는 ▲취약계층 안심벨 35%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32.3% ▲정자 내 전등 설치 17.3% ▲경로당 돋보기 비치 15.4% 순으로 결정됐다. 투표에 이어 주민자치회는 5개 분과별로 농약·폐농약병 수거사업(마을환경분과),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및 홍보, 청소년 자치학교(홍보교육분과), 장난감은행과 봉사활동 연계, 장난감은행 연장운영(지역복지분과), 주민추천형 프로그램 개발(문화여가분과), 우성산해돋이 행사(농촌경제분과) 등 자체사업을 홍보했다.

이재후 자치회장은 "오늘은 청양읍 뿐 아니라 청양군 전체를 봐도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며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입장과 의사표시를 통해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주민총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회의장을 가득 메운 주민들을 보고 주민자치의 의미를 보다 더 이해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청양읍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민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채택된 안건과 우선순위 결정사항은 관련부서 검토 후 실행여부를 판단,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식전 공연과 실로암공방의 체험부스 운영, 청신여중 학생들의 팝빙수 자원봉사로 훈훈함을 더했다.

또 청양읍주민자치회(회장 이재후)와 시니어클럽(관장 이병운)이 협약식을 갖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서천소방서, 폭염 대비 피해 최소화 안전대책 추진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오는 9월말까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기상특보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시민 수상구조대 물놀이 사고방지 ▲온열환자 신속 응급처치를 위한 폭염구급대 운영 ▲더위에 지친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건강관리, 비상시 응급처치 위한 각 안전센터별 119무더위 쉼터 운영 ▲가뭄지역 · 축산농가 급수지원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가장 더운 오후 2~5시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이나 냉방기기가 작동되는 실내에서 자주 휴식하며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 섭취로 수분, 염분, 미네랄 등을 보충해야 한다.

서천 =김성구기자

첫 번째 열린 만남의 날 보이스피싱 제로(Zero)화 선포

동구, 주민과 공직자 400여 명과 함께 선포식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일 구청 대강당에서 첫 번째 열린 7월 열린 만남의 날 행사에서 보이스피싱 제로(Zero)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만남의 날 행사는 민선7기 2년 첫 번째 공식행사로 그동안 2,4,7,10월 첫째 날 열렸던 정례조회의 딱딱한 격식행사를 개선해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주민, 직원 간 소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황인호 동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의옥 대전동부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필요한 당부사항을 전달한 뒤 주민과 공직자 400여 명과 함께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진화해감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마련됐다. 구는 지난 4월 보이스피싱 예방 주민 교육을 개최한데 이어 6월에는 금융기관 대표자와의 간담회와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를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선기자

아산시, 다중이용시설 등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7월 1일부터 16일까지 대형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단속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 시군으로 교차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등이며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냉면, 콩국, 음료류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물 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당진소방서, 제10대 김오식 서장 취임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와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제10대 당진소방서장으로 김오식 서장이 19년 7월 1일 자로 취임했다.

김오식 당진소방서장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지난 1990년 소방간부후보 6기로 소방조직에 입문해 충청소방학교 서무계장 및 교학과장, 아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당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충청남도 소방본부 예산장비팀장 및 종합방재 센터장, 천안동남서장, 태안소방서장, 천안 서북 소방서장, 충청남도 소방본부 광역기동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오식 서장은 소방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훌륭한 리더십으로 소방행정 및 현장 전반적으로 탁월한 지휘 능력을 발휘해 업무추진에 높은 성과를 이루는 등 평소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김오식 서장은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수도권 인근 산업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17만 당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와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소방서 '비상구' 생명의 문 홍보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 '비상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등급(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나눠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방화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박경배 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 나눔리더 30호 회원 가입

1일 오전 10시, 송촌장로교회에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경배 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가운데)가 나눔리더 3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초등 교과서 무단수정 집필진 법적 소송 검토"

교육부 "명예훼손 또는 계약 위반과 관련한 손·배소 여부 적극 검토 중"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폭로한 연구·집필책임자에 대해 법적 소송을 검토한다.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명예훼손 또는 계약 위반과 관련한 손·배소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를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당시 교과서정책과 과장과 교육연구사, 출판사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를 문제삼아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조치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집필책임자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는 국정도서 위탁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수정·보완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수정·보완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상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고, 장관이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을 요구할 때 집필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박 교수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박 교수가 지난 2015년 한 차례 2016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부적절하게 수정했다고 문제삼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 지시와 상관없이 박 교수가 정치적 편향에 따라 부적절하게 교과서를 수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변경했다. 이 개정 사항은 2019년도 교과서에 적용돼야 했으나 박 교수는 이를 3년 당겨 2016년도 교과서에 적용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한 뒤 국정화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검정으로 전환하면서 교육과정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했다. 결국 이번 무단수정 의혹의 본질은 집필자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개입된 것이라는얘기다.

이 국장은 "당시 교육부 개입이나 요구로 박 교수가 교과서를 먼저 수정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문서상 파악이 안 됐다"면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2017년 약 2년간 잘못된 교과서가 초등학교현장에서 사용된 사항에 대해서도 파악된 바 없었다. 교육부는 향후 그 경과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실시할지 검토할 입장이다.

이정복기자

보령교육지원청, 꿈키움멘토단 협의회

꿈키움 멘토링 사례회의 및 중간 활동 대한 평가 등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은 27일 보령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꿈키움 멘토단 6월 협의회를 실시했다.

'꿈키움 멘토링'은 모든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누리고,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한 흥미를 높여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보령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10명의 꿈키움 멘토단을 구성하여 보령관내 중·고등학생 10명 멘티와 일대일 멘토링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은 꿈키움 멘토링 사례회의 및 중간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방학 중 멘토링 운영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업무담담자의 하반기 멘토링 운영에 관한 공지사항이 안내되었다.

이진호 교육장은 "한 명 이상 지지적인 성인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대인관계 능력을 길러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하며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 =김정미기자

동부교육지원청, 반부패·청렴 실천 위한 지구별 장학협의회

청렴소통·공감 문화, 동부교육 청렴도 향상 노력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해당 기간 중 반부패·청렴 실천과 소통·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방과후학교 부장을 대상으로 지구별 장학협의회(중학교38교, 제7지구)를 통해 청렴도 향상 교육과 부정청탁 금지법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첫째,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자 선정 및 위탁·수탁 계약 방법, 회계 처리 방법, 행정 서비스(청렴연수 및 친절교육), 단위학교 수용비 책정기준 등 학교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이다.

둘째, 청렴과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청렴소통·공감문화 주간을 적극 권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위해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공익·부정수급 신고 제도를 교육하며, 그 내용은 부패 신고 및 보호 보상 제도의 이해, 부패행위 이해 및 신고·처리 절차, 보호·보상제도도 연수할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김희선 중등교육장은 "우리 지원청은 교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한문, 청렴소식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청렴과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렴 소통·공감 문화 주간을 적극 추진하여 청렴한 동부교육을 실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선문 마을 공동체, 학생과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허브로

'우리 지역 사회 이해하고 공감하기' 주제로 청양 칠갑산 방문

선문대학교는 지난달 28일, 황선조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내·외국인 재학생 170여 명이 '우리 지역 사회 이해하고 공감하기'라는 주제로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칠갑산과 마을만들기 센터를 방문했다.

선문대는 대학과 지역 사회가 소통, 협력을 통해 공생(共生)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선문대의 비전인 '주(住)·산(産)·학(學) 글로컬 공동체 선도대학'에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해 황선조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사실 대학교 총장이 학생들과 함께 등산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학생들의 지역 사회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는 선문대만의 독특한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 덕분이다. '선문 마을 공동체'라 불리는 RC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거주공간인 기숙사를 생활 체험 교육공간으로 전환한 프로그램이다. 주간의 학습활동과 방과 후 공동체 활동을 융합한 통합형 교육체제이다. 이는 선문대 교육 인재상인 '글로컬 서번트 리더'를 위한 공동체 인성 교육과정 중 하나로서 학생 자치적 운영을 위한 '촌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기숙사 입주생들은 '촌장'(각 동의 층 대표)을 중심으로 '마을'을 조직해 '마을 사업'(RC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번에 진행된 '우리 지역사회 이해하고 공감하기'라는 프로그램도 '마을 사업' 중 하나이다. 이날 일행은 칠갑산 산행 이어 청양 '마을 만들기 운동 사례'라는 주제의 '마을만들기 센터' 노승복 센터장의 특강을 경청했다.

아산 =리량주기자

충남교육청, 내년도 드론관련과·유통물류과 특색 있는 학과로 개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강경상업고의 경찰사무행정과, 광천제일고의 드론관련과, 온양한올고 국제통상외국어과, 당진정보고의 유통물류과, 서산공고의 정밀기계과 등 직업계고 5곳의 2020학년도 학과 개편을 최종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학과 개편은 미래 신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해 인력수요가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온양한올고, 당진정보고, 서산공고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재구조화 학과에 선정돼 올해 승인한 학교이고, 강경상업고와 광천제일고는 올해 충남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학과개편이다.

광천제일고의 드론관련과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기술 분야로 최근 관련 산업의 인력 수요가 많고 국방부 특성화고 지정 사업 공모 등 진로가 밝은 학과이다. 강경상업고의 경찰사무행정학과는 공공서비스 산업의 지역인재 고졸채용 확대에 따라 사무행정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개편했다. 이번에 개편된 다른 학과 역시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되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

충남교육청은 개편된 학과가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기업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학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2020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홍보 이벤트' 개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세종시교육청 공식 페이스북에서 진행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020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 및 진로·진학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퀴즈 이벤트」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세종시 관내 학생·시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2020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열리는 장소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세종시교육청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ejongedu)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달면 되며, 이벤트 상품으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이 지급 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수요자 중심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는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개최되며, 79개의 대학이 참가하여 대입설명회, 대학별 입학사정관 상담부스 등이 운영된다.

세종 =김태선기자

세종시교육청, 내년 6개 개교학교 교명 공모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오는 2020년 개교 예정인 6개 신설학교에 대한 교명 공모에 나섰다.

세종시교육청은 내년에 새롭게 문을 여는 학교의 교명을 교육가족, 지역주민, 입주예정자, 이전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을 통해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는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총 6개교이며, 지역별로는 반곡동 1개교(고), 금남면 1개교(특성화고), 해밀리(유, 초, 중, 고) 4개교이다.

이번 교명 공모는 부르기 쉬운 순우리말로 된 교명,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교명, 세종시의 법정동명을 반영하는 교명 등을 기본 방향으로 진행되며 타 지역에서 사용되어 중복되거나 혼동이 되는 교명은 제외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접수된 명칭에 대해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교명선정 후,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 '공지사항'란의 공모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 =김태선기자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제20대 우진식 원장' 부임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제20대 우진식 원장이 7월 1일자로 부임했다.

우 원장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원 모두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지난 1979년 공직을 시작한 우 원장은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충남교육청 시설과장, 충남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부여교육지원청 '주민제안교육 프로그램-와글와글 꿈타래' 운영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윤학중)은 부여군 초등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제안교육 프로그램-와글와글 꿈타래 제1회: 바리스타직업체험'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태안 원북초, 생존수영 교육 실시 태안원북초(교장 두혜주)는 2~6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했다. 생존수영 교육은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켜 물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처하고 물에 빠졌을 경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실시됐다.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배움" 청양미당초등학교(교장 장철순)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북경일대 해외문화탐방체험학습을 다녀왔다. 3일차 미당초등학교 학생들은 위성에서 보이는 인공 구조물인 만리장성을 방문해 만리장성성벽 위를 직접걸어 보았다.

철도공단, 코트라와 제2회 몽골 철도학교 개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제2회 몽골 철도학교'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철도학교에는 몽골 도로교통부 철도·해양정책국장을 비롯해 몽골철도공사 및 울란바토르철도공사 등에서 25명이 참가했다.

●동 정●●●

제35회 충청남도 여성대회

양승조 충남도지사= 2일 오전 10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제35회 충청남도 여성대회에 참석하며 오후 12시 30분부터 보령, 부여 일대의 임업현장을 방문한다.

벼 병해충 드론방제 연시회

황선봉 예산군수= 2일 오전 11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벼 병해충(먹노린재 등) 드론방제 연시회에 참석.

농어촌 선진국 국외연수 실시

김석환 홍성군수= 8일까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농어촌 선진국 국외연수 실시한다.

세종시 디자인캠프 참가자 모집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어린이들이 직접 놀이터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디자인캠프'에 참가할 어린이를 7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두의 놀이터는 아동비율과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이들의 도시, 세종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정3기 공약과제로 추진된다.

오는 8월 열리는 디자인캠프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모두의 놀이터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다.

응모 자격은 모두의 놀이터 조성 장소인 고운동과 주변지역인 아름동, 종촌동에 거주하거나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로, 모집규모는 20명이다.

어린이 디자인캠프에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15일까지 이메일(kwonbok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어린이는 오는 8월에 열리는 디자인 캠프에 참여해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체험을 하고, 놀이터전문가인 편해문 총괄기획가와 함께 하는 모두의 놀이터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어린이디자인 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놀이터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8~9월 중 기본구상안 공유회, 9~11월 기본실시설계 공유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놀이터 문화조성을 위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심 있는 시민을 놀이활동가로 양성하고, 준공 후에는 지역 어린이 및 부모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통해 시민 주도의 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황진서 아동청소년과장은 "모두의 놀이터는 어린이의 시각에서 놀이 활동이라는 놀이터 본질에 충실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어린이 디자인 캠프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보장하는 놀이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모, 최근 실외놀이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고운뜰 공원 숲속쉼터를 선정했다.

예산군, 3개 기업과 496억원 규모 투자 협약 체결

"기업, 성공적 정착 행·재정적 지원"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道)와 6개 시·군, 19개 기업이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투자 협약에서 삼보오토(주), ㈜영신에프앤에스, ㈜에이원케미칼 등 3개 기업과 예산일반산업단지 6만 9932㎡ 부지에 496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이전 및 신설하고 92명의 신규 고용을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선주두자인 ㈜삼보오토는 알루미늄을 주원료로 다이캐스팅(정밀주조) 공법을 이용해 엔진케이스류, 변속기 부품, 조향장치 등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2022년 6월까지 348억원을 투자해 예산일반산업단지 내 2만 6446㎡ 부지에 안산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영신에프엔에스는 자동차 부품 중 엔진, 트랜스미션 전문 가공업체로서 2020년 7월까지 35억원을 투자해 예산일반산업단지 내 1만 3200㎡부지에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한다.

아울러 봉산면 소재 ㈜에이원케미칼은 부동액, 워셔액 등 자동차 케미컬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예산일반산업단지 내 3만 286㎡부지에 113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확장 신설할 예정이다.

황선봉 군수는 "오늘 투자협약을 체결한 3개사가 예산군에 투자를 결정한 만큼 앞으로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더불어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3개 기업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역인력 우선 채용 및 지역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등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키로 약속했다.

김성구 기자

충남도 만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

도내 18만 5057명 대상… '충남형 교통카드' 개시 행사

충남도 내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1일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도는 1일 홍성종합터미널에서 '충남형 교통카드' 사용 개시 행사를 갖고, 도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 시작을 안팎에 알렸다.

만 75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화는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민선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대상은 18만 5057명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충남형 교통카드를 승차 시 단말장치에 대기만 하면 횟수 제한 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15개 시·군과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형 교통카드는 특히 단말장치에서 기존 '감사합니다'라는 음성 대신 '행복 충남'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했다.

이날 개시식에는 양승조 지사와 도의회 장승재·조승만 의원, 신안철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 이준일 충남버스조합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 충남형 교통카드 전달과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충남의 75세 이상 어르신 18만 5000여명은 시·군에서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활용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 이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은 결과"라며 각 시장·군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권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지역과 비교할 때 우리 충남 각지의 어르신들은 그동안 차별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버스비 무료화는 도내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여가생활과 다양한 경제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도는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30~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추진 중이다.

김정환 기자

권한·책임 강화된 '주민자치회' 닻 올린다

장군면·한솔동·도담동 제1기 출범식… 위원 신규 위촉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2일 한솔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 행사는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주권대학의 주민자치 특강이 실시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읍면동의 16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됐으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구간을 나눠 모집을 실시했다.

총 280명이 지원한 가운데 114명이 최종 선정됐고 16세 이상 청소년 위원도 9명이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세대 및 계층 간 벽을 허물고 시민참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기구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마을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시는 세종형 주민자치회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춘희 시장은 "하향식 관 주도의 자치가 아닌 시민이 직접 주도해나가는 실질적인 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홍성군 맞춤형 실버 정책 추진

충남 홍성군이 100세 시대 어르신들을 폭넓게 케어하는 맞춤형 실버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어르신 복지정책을 수혜자별 경로당 이용 어르신, 재가노인복지시설 어르신, 독거노인 어르신 정책으로 나누어 타겟팅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선보인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방문요양서비스,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을 총칭한다.

우선 재가노인 복지시설 어르신 케어정책으로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 보조기 지원 사업을 선보인다. 40명의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해 복지 수혜 대상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기 1대당 25만원 범위이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0%, 차상위 92.5%, 일반 85%까지 차등 지원한다. 7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군은 상반기 65세 이상 저소득 재가노인 147명에게 밑반찬 배달의 정책혜택을 제공했으며 홍성 군노인종합복지관, (사)공감사랑 나눔회 2개소에서 하루 15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주 5일 무료중식을 제공해 수혜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군은 1,500명의 어르신들에게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제공했으며 독거노인 공동생활 지원체 운영사업, 방문 건강관리 시스템도 연계 추진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감시 시스템을 크게 강화 했다.

그 밖에 경로당 370개소에 대해 이용 어르신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 했다.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 10,000여 명에게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분기별 3회 제공한 바 있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800대도 보급 완료 한 바 있다.

한편, 군이 충남도 통계정보관에서 입수한 결과에 따르면 관내 독거노인수의 경우 2017년 6,263명으로 2013년 5,814명 대비 약 8%가 증가했으며 재가복지 시설 이용 어르신 수도 2013년 307명에서 365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 관련 기초 통계자료를 지속 분석해 시대 흐름에 맞는 어르신 케어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민선7기 출범 1주년 기념

황선봉 군수 소통과 봉사로 하루 보내

황선봉 예산군수가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황 군수는 1일 새벽 격식과 관행을 탈피하고 군민 가까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서민군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새벽을 열었다.

황 군수는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예산읍 구석구석을 돌며 각종 쓰레기를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30여명의 환경미화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벽부터 깨끗한 예산군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새벽에 환경미화활동을 펼친 황 군수는 점심시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30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봉사자로 나서 준비된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황선봉 군수는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취임 초기에 가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기념식 대신 소통과 봉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의 약속인 섬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련

세종시 시민 목소리 듣는다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시는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5개년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시민 1,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눠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한 온라인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전화조사는 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민 체육활동 실태, 체육시설 수요 등을 묻는다.

현장조사는 시내 주요 공공체육시설 이용객 400명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만족도 및 운영개선 사항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배너, 큐알(QR) 코드 접속을 통해서도 설문조사 및 시민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중 최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균형적인 체육시설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공공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세종시의 중장기적인 체육 인프라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일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도로명주소 안내 그림자조명장치 설치

예산군, 도로명 안내도 홍보도 볼거리도 일거양득

예산군은 최근 예당호 출렁다리 출입구 2개소를 비롯한 관내 총 8개소에 도로명주소 안내 그림자조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로고젝터는 벽면이나 바닥에 LED를 활용해 특정한 문구나 이미지를 송출하는 장치로,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볼거리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설치된 로고젝터 이미지는 ▲도로명 주소 ▲당신과 함께 있는 이 길은 예당관광로입니다 ▲1100년 역사의 울림 새천년 희망의 열림 등 도로명 주소와 예산군을 홍보하는 문구로 설치됐다.

군 관계자는 "단순한 도로명 주소 홍보뿐만 아니라 군정홍보 문구, 힐링 문구 등을 삽입해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고문의
(042)538-3030

동정

본회의

오세현 아산시장=2일 오전 10시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기념행사

김홍장 당진시장=2일 오후 6시 메가 뷔페에서 열리는 제3대 당진시의회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1주년 기념행사

김기재 당진시의장=2일 오후 6시 메가 뷔페에서 열리는 제3대 당진시의회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관광정책 사례 수집

김돈곤 청양군수=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을 방문해 우수한 농촌지역 관광정책 사례를 수집.

청양군 버스승강장 340곳 일제 정비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대중교통 이용 시 군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340곳의 시설물 보수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버스승강장 ▲지붕보수 4곳 ▲도색 및 승강장 명칭 보수 46곳 ▲의자교체 13곳 ▲유리교체 4곳 ▲태양광 조명등 신규 설치 및 보수 15곳을 실시했다.

또 전 승강장의 유리창 닦기, 거미줄 제거, 바닥 청소, 방치 쓰레기 및 불법광고물 제거 등으로 미관을 살렸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정보통신과 상반기 청렴 교육

아산시 정보통신과는 지난달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청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매뉴얼 및 사례,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을 숙지하고 청렴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김창덕 정보통신과장은 "앞으로 꾸준한 청렴교육을 통해 아산시의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일자리 넘치는 활력 있는 당진경제 이룰 것

김홍장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시정운영 방향 밝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항만물류 중심도시로서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 있는 당진 경제의 대도약을 이루어 내겠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1일 오전 11시 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열린 민선7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선7기 시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그동안 브리핑 방식에서 벗어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토대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민선 7기 1년 동안 시정참여와 경제 분야 성과로 ▲당진형 주민자치 확산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정책모델 구현 ▲역대 최다 정부예산 확보(8431억 원) ▲6년 연속 일자리 대상 수상 ▲90개 기업 6117억 원 투자유치 ▲에너지센터 개소 ▲석문산단 · 송산 2산단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송산 2-2 외투단지 추가 지정 등을 꼽았다.

또한 도시 인프라와 복지, 환경 분야에서는 ▲신평~내항 간 항만진입도로 기본설계 돌입 ▲어촌뉴딜 300사업 선도 대상지 선정 ▲2020 충청남도 체육대회 유치 ▲여성친화도시 조성 ▲석문호 유입하천 통합 집중형 공모사업 선정(693억 확보) ▲당진1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향후 3년 동안의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살맛 나는 당진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시민이 주인인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선도도시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소통과 공감 화합의 열린 시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연수원 설립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자치 정책 박람회 개최(7월 23~24일) ▲당진 평택항 관할권 회복 ▲국제 안전도시 공인 등을 언급했다.

'대도약'을 약속한 경제 분야에서는 ▲석문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의 임기 내 분양완료 ▲제5 LNG기지 건설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건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수소경제 선도도시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6차 산업 활성화 ▲축산 낙농 클러스터 조성 ▲발전소 온배수 활용 첨단 친환경 양식단지 운영 ▲삽교호 체류형 숙박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제시됐다.

이밖에도 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회관 등 복지공간 확충 ▲노인일자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제철 업소 민간환경감시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는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및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준공 ▲석문산단인입철도 조기 착공 등을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김홍장 시장은 "시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뤄 살맛 나는 당진을 선물해 드리겠다"며 "시민과 함께 하는 이 멋진 여정에 많은 신뢰와 성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 활성화 박차

갯벌 등 치유효과 임상시험 실시… 해양치유프로그램 보유 기대

태안군이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해양헬스케어 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해양 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화 연구용역'의 세부과제로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민호 교수팀의 '갯벌 임상시험'과 한양대학교 박시복 교수팀의 '피트팩과 머드팩의 비교임상시험'이 진행됐다.

이번 임상시험은 태안의 핵심 해양치유자원인 갯벌에서의 보행 및 균형 훈련 효능 및 피트와 머드를 팩으로 사용했을 경우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했다.

우선 서울아산병원 전민호 교수팀의 '갯벌 임상시험'은 65세 이상의 보행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갯벌에서 보행과 균형잡기 훈련을 했을 때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민호 교수는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재활이 필요한 젊은 환자, 스포츠 부상자등에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대 박시복 교수팀의 '피트팩과 머드팩의 비교 임상시험'은 피트팩의 단일효능에 대해 연구한 지난해 임상시험과 달리, 유사자원인 머드와의 비교 실험을 통해 각각의 효능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으로 특화하기에 적합한 자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박시복 교수는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형태는 비슷하나 그 생성과정이 판이한 피트와 머드의 치료효과 차이를 증명, 향후 실용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과정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태안의 각종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향후 조성될 치유센터 내 프로그램도 다양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헬스케어 산업이 태안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태안에서 발견된 해양치유자원인 '피트'는 환경오염이 존재하지 않던 과거의 깨끗하고 다양한 식물들이 수천년의 세월을 거쳐 퇴적돼 바이오미네랄 · 미량원소 · 비타민 · 아미노산 · 지방산 · 식물호르몬이 사람의 피부에 흡수되기 용이한 분자구조로 농축돼 있어, 피부미용을 비롯해 항노화 · 항염증 작용을 하는 천연 항생제로 평가받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위생과 결연마을 일손돕기

아산시청 위생과는 지난달 28일, 1부서1촌 자매결연 마을인 도고면 향산리를 방문해 마을환경정비 등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위생과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이 참여해 바쁜 농사철로 방치됐던 텃밭과 화단의 잡초제거 및 쓰레기 수거 등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전개했다.

오세규 위생과장은 "도고면 향산리 주민들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 앞으로도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경로당 화재 · 영업배상보험 가입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경로당 이용자들의 안전과 화재 등 사고에 대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군내 경로당 301곳의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기간은 2019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8일까지로 향후에도 매년 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 화재발생 시 건물 및 집기 보상 ▲경로당 이용사고 시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보장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것"이라며 "사고발생 시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경로복지팀(940-2083)에 연락하면 보험혜택 및 사고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대학생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태안군, 전주대학교 학생 4박 5일간 농촌봉사활동 펼쳐

태안군이 농촌의 공익적 가치인식을 높이고 농업 이해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80명, 의과대학 60명 등 총 140여 명이 '2019년 농촌체험 연계 가치 공감 확산 프로그램(농촌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2019년 농촌체험 연계 가치 공감 확산 프로그램'은 농업가치 공감교육, 농촌봉사활동, 농촌체험활동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24일 농업가치 공감교육을 시작으로 농작업 안전교육, 마을주변 환경정화활동 등을 실시했으며,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읍 도내리와 인평리의 영세농가를 비롯한 4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마지막 28일에는 볏가리 마을 염전체험, 매화둠벙 마을 삼색찐빵만들기 체험 등 농촌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배우고,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농촌봉사활동을 계획 중인 대학과 협의해 추가적인 모집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팜파티, 팜투어, 힐링투어를 활용한 다양한 가치공감프로그램을 운영으로 태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시 음식물 조리 · 섭취 주의 당부

보건소, 여름철 식중독 올바른 식생활로 예방하자

당진시 보건소는 최근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의 조리와 보관,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소에 다르면 식품의약 안전처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6월부터 8월 여름철의 식중독 발생건수가 연평균 113건이었으며,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40%가 이 기간에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식중독이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더욱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청결한 손 씻기의 생활실천이며,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식중독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음식물을 익혀 먹기다. 육류의 경우 7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달걀은 생으로 먹는 것을 피해야 하며, 조개, 생선 등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한 다음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익혀 먹어야 한다.

주방 도구 소독하기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 행주와 수세미에서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행주와 수세미는 자주 삶아주고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매일 사용하는 주방기구인 식기와 칼, 도마 등도 사용 후에는 반드시 뜨거운 물로 소독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 기자

청양군 외국음식전문점 특별 지도점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7월 한 달간 외국음식전문점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 · 불량식품 유통을 단속하는 것으로, 외국 식료품을 조리 · 판매하는 베트남 음식 전문점 등이 대상이다.

중점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제품 조리 · 판매 행위, 조리장 위생 및 유지 · 관리 실태, 영업자 ·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 위생관리, 냉동 · 냉장 보관기준 준수 등이다.

군은 특히 외국음식전문점이 납품받는 고기에 대한 표시기준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 · 불량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안전한 원재료가 제공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군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중국시장 개척위해 떠난다

논산시,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칭다오, 정저우로 파견

논산시가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중국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2019 논산시 중국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지난 4월부터 참가업체 모집을 시작해 6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사절단은 4박 5일 간의 일정으로 중국 칭다오, 정저우로 떠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해외 경쟁력과 시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코트라(KOTRA)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농업회사법인 ㈜두리두리, ㈜보고신약, ㈜보람C&H, 옥바다, 휴먼테크(주), 논산딸기랜드(주) 등이다.

시는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외규격인증지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지원을 발판삼아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확대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논산=감태선기자

수요자 중심 영유아 보육 기능 강화

천안시, 시간연장 · 휴일 어린이집 등 보호자 여건에 맞춘 다양한 보육 시스템 도입

천안시가 보호자들의 여건과 근로환경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어린이집과 보육 시스템 운영으로 일 · 가정 양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보육환경 개선으로 일반 어린이집 외에 휴일보육 어린이집 3곳, 24시간보육 어린이집 1곳,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4곳, 시간연장형 보육 어린이집 67곳, 영아 전담 어린이집 10곳,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고 있다.

휴일보육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근로활동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등 휴일에 보육이 필요한 만0세~만5세 취학 전 아동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돌보는 보육 시설이다. 지난 2015년 7월 국공립어린이집인 세린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현재는 불당마루, 성성호수 어린이집이 추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원거리 근무로 주중(월~금요일) 보육이 어려운 한부모, 조손가정, 주야간 교대근무, 야근이 잦은 보호자를 위해 마련됐다.

천안에는 국공립 성정어린이집(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79)이 만 2세~만5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월요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한 만큼 시간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다가, 보듬이나눔이, 한솔, 백석한들 등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3,000원+부모부담금 1,000원)이며,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부모의 맞벌이로 야간에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동 대상 '시간연장형 보육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7:30~19:30)을 넘어 밤 12까지 연장 운영하며 만0세부터 만5세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만0세~만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동남구와 서북구에 각각 5곳씩 지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손길이 필요한 영아를 전담 보육하고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문성, 행복이 가득한, 마주보기어린이집 등이 운영되고있으며 특수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로부터 학습장애 또는 충동적 무절제 과다행동(ADHD)와 같은 사회부적응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보육기능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애아와 일반아동을 통합 보육하는 늘푸른어린이집 외 13곳이 운영되고 있어 수요자가 원하는 보육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 시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에 맞는 수요자 중심 영유아 보육시설을 매년 10곳 이상 늘려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으로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복옥 여성가족과장은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약 시간대 보육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어린이집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 정

중간보고회

구본영 천안시장= 2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주민설명회

노박래 서천군수= 2일 오후 3시 장항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브라운필드 토지이용계획 등 주민설명회에 참석.

정림사지박물관 특별전

박정현 부여군수= 2일 오후 3시 정림사지박물관에서 열리는 정림사지박물관 특별전에 참석.

부여군, 75세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승차 개시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7월 1일부터 75세이상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을 대상으로 충남 전 지역 대상 버스 무료승차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날 새벽 6시 30분 부여읍 용정2리 버스승강장 앞에서 첫 차에 승차하는 75세이상 어르신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안부 인사를 전했다.

부여군 민선 7기 1년 맞아 공직자와 함께 미래 비전 공유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정현 부여군수는 1일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산하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는 특강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박 군수의 뜻에 따라 소모성 기념행사를 지양하고 보다 나은 부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 공직자들과 함께 비전 및 군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민선 7기 1년을 돌아보며 부여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강연 자료 없이 강연자 박 군수와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박정현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군정을 일선에서 함께 해준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민선 7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열정과 관심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7기 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희망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직원 분들이 저와 함께 동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룡시 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열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시민 관심 제고위한 기념식 · 공연 마련

계룡시는 양성평등 주간(7.1~7.7)을 맞아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2019년 양성평등 주간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5일 오후 12시 30분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할 100년, 함께한 100년'이라는 주제로 진정한 양성평등 의미를 전달하고 성평등문화 확산 및 범시민적 관심을제고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행사는 계룡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미순) 주관으로 여성단체회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기념식, 2부 기념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 기념식에서는 벨리댄스, 에어로빅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유공자를 표창하고, 대회사, 축사에 이어 양성평등 결의문 낭독하며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다짐한다.

2부 기념공연에서는 품격 있는 클래식에 뮤지컬, 연극, 개그요소를 담은 '뻔뻔한(funfun)한 클래식' 공연과 경품추첨 등 남녀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행사장 한편에서는 여성 · 가족관련 정책부스와 양성평등디자인 우수작품 전시, 인식퀴즈 등 양성평등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과 양성평등 정책 및 실천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 캘리그라피 부채 및 브로치 만들기, 건강관리체험, 다문화의상 체험,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양성평등에 대한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위한 기초교육

논산시, 지역 · 관광자원 학습 통한 지역민 역량 강화기대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미래의 문화관광해설사를 꿈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일부터 문화관광 안내도우미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지역의 문화 · 유적 및 관광자원에 대한 학습을 통해 논산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논산의 역사와 문화 이해 ▲근대문화 유산의 보고 강경 ▲논산의 관광자원과 축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설안내 서비스 등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애향심 고취를 통해 시민 스스로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고,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꿈을 실현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논산=감태선기자

2020년 서천군의 모습 2020명의 목소리를 담다

7월 한 달 동안 예산편성 방향 수립 위한 범 군민 설문조사 시행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20년 군정 운영 방향 및 예산 편성 방향 수립을 위해 군민 2020명을 대상으로 범 군민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0년 서천군의 모습, 2020개의 목소리를 담다!'를 추진 목표로, 공무원 및 일반 주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2,020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1개 분야별 우선 투자 사업 순위 선정이며, 군은 조사 결과를 2020년 예산 편성 시 기본 지침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모든 군민을 비롯해 군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읍면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등 일반 주민 대상의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희망차고 행복한 서천군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담아 2020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부여군 보건소 노인 결핵검진

부여군 보건소(소장 김갑수)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노인 결핵검진 사업은 결핵 발병 및 결핵 사망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노인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특히 집단생활로 결핵에 취약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와상환자를 포함한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추진한다.

부여군 결핵 신환자 중 노인 결핵 발생비율은 2018년 72.3%로 전국 45.5% 충남 56.1%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57% 2017년 67.1%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질병관리본부 연보

김갑수 보건소장은 "부여군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결핵검진의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새마을운동 계룡시지 회감자수확으로 이웃사랑 실천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지회장 황근택)는 지난 달 28일, 새마을 남 · 여 지도자 70여명과 함께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감자 수확에 힘을 모았다.

이날 이웃사랑 실천 위해수확한 감자는 지난 3월 두마면 왕대리 소재 휴경지 2,310㎡에 300㎏ 분량의 씨감자을 파종한 것으로 단체 회원들이 정성껏 길러 2,100㎏을 수확했다.

황근택 지회장은 "내 일처럼 봉사해주신 회원들의 노력과 사랑 덕분으로 올해 감자 농사가 잘 되어 기쁘다"며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보탬이 되는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마을지회는 감자 수확을 끝낸 휴경지에 김장나눔봉사를 위한 배추 등을 직접 경작해 연말 따뜻한 이웃사랑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천안 청수도서관 원어민과 가상체험실 운영

천안시 청수도서관(관장 박상임)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여름방학, 원어민과 함께하는 가상체험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수도서관 2층 영어자료실 내 가상 체험실에서 운영되며, '영어 체험형 동화구연'과 '영어가상체험'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영어 체험형 동화구연'은 5~7세를 대상으로 동화 속 배경에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체험형 독서 콘텐츠이며, '영어 가상체험'은 8~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원어민과 가상 공간속에서 영어로 상황극을 표현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작년 개관이래 주 3회씩 운영되며 아이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영어 체험형 동화구연'은 올 7월부터 아이들에게 친숙한 '콩쥐팥쥐', '피터팬', '청개구리' 등 새로운 동화콘텐츠로 운영할 예정이다.

'영어 체험형 동화구연'은 화 · 목 · 토요일 오후 4시, '영어 가상체험'은 수 · 금 · 토요일 오후 3시에 원어민 강사가 직접 운영한다.

7월 프로그램 신청은 2일 오전 10시, 8월 프로그램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천안시 도서관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lib.do)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수도서관 영어자료실(041-521-3933)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정복기자

재산분 주민세 신고 · 납부기간 운영

서천군, 7월 말까지 신고납부 기간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과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법인 포함)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7월 1일 현재 서천군내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부담을 받게 된다.

군은 납세자들의 가산금 부담을 해소하고 신고?납부 기간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우편, 팩스(FAX 950-445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서천=김태선기자

동 정

2019 올해의 책 선포식

김정섭 공주시장= 2일 오전 10시 30분 고마에서 열리는 2019 올해의 책 선포식에 참석한다.

서산 쌀 본죽 첫 납품 기념행사

맹정호 서산시장= 2일 오전 10시 대산농협 RPC에서 열리는 서산 쌀 본죽 첫 납품 기념행사에 참석, 오후 2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부석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 위촉식에 참석, 오후 3시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사)서산시자원봉사센터 출범식에 참석.

6월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 선정

보령시는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직원 5명을 6월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1일 열린 7월 중 직원모임에서 표창했다.

안전총괄과 허준 주무관은 국가총력전 차원의 전시대비연습과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인 2019 을지태극연습을 완벽히 수행했으며, 군이 주도하고 행정기관이 지원한 화랑훈련도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비상대비 역량을 높여왔다.

교육체육과 박슬기 주무관은 대천해수욕장 개장과 제22회 보령머드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추진한 제18회 보령임해마라톤대회에 38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국제배구연맹 주관 발리볼네이션스리그 한국대회를 보령으로 유치하여 3일간 6620명이 관람하며 보령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왔다.

건축허가과 김혁진 주무관은 '알기 쉬운 허가 안내 책자'를 제작, 관련 업체와 읍면동 등에 배부하여 시민들의 다소 어렵게 생각하는 허가분야의 이해를 도왔고, 이와 함께 토목 및 산림분야 설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췄다.

건설과 정도령 주무관은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숙원사업 218건을 추진해왔고, 교량의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 예방에도 앞장서 왔다.

도로과 한누리 주무관은 오는 2021년이면 서해안 최대 관광휴양 랜드마크로 조성될 원산도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테마랜드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토지보상으로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추진으로 주민들의 교통환경을 개선해 온 공로로 6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보령 =김태선기자

대대적 조직개편 · 인사 단행

금산군 "강한조직으로 거듭난다"

금산군은 7월 1일자로 대대적 조직개편과 더불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군정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힘 있는 군정 추진을 위한 대안이 객관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부서의 신설 · 통폐합 · 기능보강 등 사업부서 및 지원부서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유기적 역동성을 꾀했다.

과감한 조직개편으로 시대적인 패턴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한 대목이 눈에 띈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3과 5팀, 22명의 인력이 증가했다. 개편전 3실 11과1단 · 2직속기관 · 2사업소 · 10읍면에서 2실14과 · 2직속기관 · 1사업소 · 10읍면으로 바뀌었다.

관광문화체육과, 교육가족과, 허가처리과 등 역점사업 추진 조직 및 현장업무 처리 전담부서를 신설, 전진 배치했다.

전체적으로 부서는 33개에서 36개로 3개 늘었고, 팀 역시 145개에서 5개 많은 150개 팀이 됐다. 정원도 659명에서 681명으로 22명 늘었다.

증원된 인력은 복지, 보건, 교통, 도시 등 생활편익 부서에 투입됐다.

주민들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복지지원실과 보건소는 부서를 각2개 과로 늘렸다.

조직개편과 더불어 인사역시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승진 60명, 전보 283명 등 총원대비 42%에 해당하는 인사가 단행됐다.

기술직군 32명, 행정직군 28명이 승진했으며, 23명이 정규임용 또는 복직했다.

실무자수 확대로 결원을 최소화했으며, 팀기능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는 버리고 부족한 인력은 보강했다.

이번 인사는 능력과 성과중심, 일 중심 차원의 변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금산=주연기기자

서산시 '해삼' 서식환경 조성 사업 본격 추진

가로림만(우도 마을어장)에 해삼 전용어초 투하 및 해삼 종자 방류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 27일 가로림어촌계(계장 이상주) 마을어장인 우도 인근 해상에 해삼 전용어초 3,200개를 투하하고, 어린해삼 5만3천미를 방류하는 등 해삼 서식 환경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바다의 인삼'이라 불리는 해삼은 정부 10대 수산물 전략 수출품목 중 하나로 대중국 수출 자원량 확대를 위해 집중 육성되고 있으며, 어촌의 고령화를 타개하고 기존의 굴, 바지락을 대체할 고소득 품목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해삼 종자는 잠수사를 동원 해삼 전용어초가 조성된 곳에 안착시킴으로 조류에 의한 유실과 해적생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 해삼이 해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생존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방류 후 2~3년이면 마리당 200g까지 성장해 어촌계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해삼의 서식 적지조사와 더불어 해삼 서식환경 조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해삼이 대량 생산되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김정한기자

공주시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실시

도로변 풀깎기 실시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오는 9월까지 관내 주요도로변에 대한 제초작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초작업 구간은 시가 관리하는 국도 19㎞를 비롯해, 지방도9㎞, 시도226㎞, 농어촌 도로 519㎞, 도시계획도로 665㎞등 총 1,438㎞에 달한다.

시는 이 구간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도로 197.8㎞는 용역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도로는 도로보수원을 투입해 다목적차량으로 작업을 벌이며,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은 읍면별로 자체 추진한다.

매년 3회 실시되는 도로변 제초작업은 1차 풀 깎기는 우기철을 앞둔 6말부터 7월초 시행하고, 2차는 우기철 그리고 3차는 추석 명절 전에 진행된다.

김대환 도로과장은 "도로변에 무성한 잡목과 풀 제거 및 노견 정비와 포트 홀 정비 등을 수시로 실시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인삼 '수출시장 다변화' 총력

프랑스 홍보마케팅 등 세계건강시장 위치 선점 집중

금산인삼의 해외시장공략이 탄력을 얻고 있다.

금산군은 중화권 및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인삼소비국은 물론 잠재적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러시아, 유럽권, 북미권에 대한 수출다변화를 집중 모색하고 있다.

한국 고려인삼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중국, 베트남, 대만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금산인삼전통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대표적 지위확보, 국제농산물우수관리 규격인 GAP 및 GMP 인증제도 도입, 한류문화 콘텐츠 확산 등 세계시장 흐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서 시장 확대의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인삼수출의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떠오르면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과거 금산인삼 수출의 불모지로 인식됐던 베트남은 최근 중국, 홍콩에 이어 전체 금산인삼 수출의 14%(2018. 12)를 점유하는 신흥시장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에 머물렀던 무역규모가 조직화된 유통채널 확보로 정식적인 수출입 안정화가 이뤄질 경우 동남아권 수출 전진기지화의 무게감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시장 가능성을 바라본 문정우 군수는 지난 4월 금산인삼 소공인 수출활성화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 베트남 대기업인 '빈그룹'과 인삼공급 및 유통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도 러시아 모스크바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80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본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도 참여, 시장 여건을 타진했다.

지난 6월 중국 상해 및 태국에서 열린 금산인삼 수출상담회에서는 285만 불의 수출 MOU 체결과 더불어 282만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작년 11월 키르기스스탄 농림부 및 이스쿨州와 국제우호교류 MOU를 체결해 향후 중앙아시아 권역의 인삼수출 전진기지 확보한 금산군은 유럽권 시장개척에 본격 나선다.

문정우 군수는 이달 2일부터 7일까지 4박 6일간에 걸쳐 금산인삼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프랑스를 방문한다.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금산인삼 홍보세미나 및 B2B 전문 수출상담회를 열어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된다. 덕원인삼영농조합법인 등 관내 인삼관련 유력기업체가 참여해 유럽진출의 기회를 확장한다.

농축액, 홍삼정, 스틱, 인삼약초차 등 10여개 수출 주력상품이 프랑스인들의 관심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우 군수는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소추세에 있던 인삼수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며 "엄격한 품질관리,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이라면 외국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인삼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과 수출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산=김정환기자

보령시 도서 종합 개발사업 '착착'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편의시설 개선

보령시가 미래 해양의 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9억 원을 투입하여 도서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균형발전,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도서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권역별 특화된 도서개발, 관광과 연계한 도서관광 인프라 확충, 섬 마을 생활환경의 집중 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4개 사업에 565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원산도와 효자도, 장고도 등 6개 도서에 7개 사업 19억 원을 투입하는데, 6월초까지 6개 사업을 완료했고, 7월 말까지 1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효자도는 마을 간 교통여건 개선과 편리한 어장 진출입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해안도로를 개설했으며, 장고도는 해안 저지대 침수 등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대멀해안도로 호안 보강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원산도에는 고령화된 도서민들이 바지락 채취 시 보다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촌항과 간사지 사이의 어장진입로를 개설하고, 관광객 이용 편의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오봉산 해변의 배수로 정비도 완료했다.

아울러,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외연도의 경우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편리하고 쉽게 외연도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둘레길의 경사도를 낮추고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으며, 고대도는 마을 간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안길을 재포장했다.

한상범 해양정책과장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주민 생활편의 도모는 물론, 국비가 80%가 투입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의 부담까지 낮출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섬마다 각기 다른 매력과 특성을 잘 살려낸 관광 활성화는 물론, 편의시설 확충 및 문화 · 복지혜택 향상, 소득사업 활성화 등과의 연계로 도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우/리/동/네

서산시 여성 일자리박람회 호응

28명 현장 채용 및 40명 개별 면접 진행 예정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사회적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2019 서산시 여성 일자리박람회'가 경력단절여성 300여명이 몰리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박람회는 ㈜듀링 서산공장, ㈜탬즈 등 우수기업체와 현장 1:1 면접, 무료 이력서 컨설팅 및 사진촬영 뿐 아니라 취업준비를 위한 건강상담(혈압/당뇨, 인바디 검사), 성공면접을 위한 퍼스널 컬러매칭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열려 방문한 여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박람회에 열린채용관으로 현장에 참여한 10개 기업에는 300여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해 55명이 현장 채용됐으며, 새일센터와 일촌협약 기업체 및 기업의뢰를 통해 간접 참여한 18개 기업에는 40명의 이력서가 접수되어 서류심사 후 개별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수공에 소품제작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및 서산시 주부동아리 구성원들이 운영한 수공예 판매부스는 박람회의 또 다른 볼거리로 취업을 위해 방문한 여성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으며, 수익금 607,500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다문화 가정 등 지역이웃의 자립을 돕는데 기부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우수 인재 채용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고, "오늘 박람회가 취업을 원하는 서산 시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2년도 개소 이래 총 8,206명의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기여했으며, 올해도 1,457명의 서산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서산시 여성은 누구라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660-2707)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 =김정한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 여름아 부탁해 (KBS1 오후 8시25분)

준호(김사권 분)는 상미(이채영 분)가 가진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금주(나혜미 분)는 철의 여인 대본연습 자리에서 석호(김산호 분)에게 선을 긋는다. 한편 영심(김혜옥 분)은 명자(김예령 분)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가는데…

▲ 수상한 장모 (SBS 오전 8시20분)

제니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한 은석. 은석은 오회장을 찾아가 결혼 허락을 구하고, 이를 눈치챈 애리는 수진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전하는데… 한편, 경인과의 인터뷰를 허락한 제니. 대화 도중 경인으로부터 수진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

▲ 퍼퓸 (KBS 오후 10시00분)

이도는 기자회견에서 예린에 대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민석과 공개 열애 중이었던 예린은 순식간에 삼각 로맨스에 휘말리게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편, 지나가 예린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냐 묻자 이도는 29년 전 자신의 스케치북을 지나에게 보여주는데...

케이블 명화

▲ 꾼 (OCN 오후 10시00분)

'희대의 사기꾼'을 잡기 위해 사기 '꾼'들이 뭉쳤다! "판 다시 짜야죠, 팀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사기꾼' 장두칠이 돌연 사망했다는 뉴스가 발표된다.

그러나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과 함께 그를 비호했던 권력자들이 의도적으로 풀어준 거라는 추측이 나돌기 시작한다.

사기꾼만 골라 속이는 사기꾼 지성(현빈)은 장두칠이 아직 살아있다며 사건 담당 검사 박희수(유지태)에게 그를 확실하게 잡자는 제안을 한다.

박검사의 비공식 수사 루트인 사기꾼 3인방 고석동(배성우), 춘자(나나), 김 과장(안세하)까지 합류시켜 잠적한 장두칠의 심복 곽승건(박성웅)에게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한다. 하지만 박검사는 장두칠 검거가 아닌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은밀히 작전을 세우고, 이를 눈치 챈 지성과 다른 꾼들도 서로 속지 않기 위해 각자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 판에선 누구도 믿지 마라!

진짜 '꾼'들의 예측불가 팀플레이가 시작된다!

▲ 잃어버린 세계 2 (채널CGV 오후 8시40분)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 거대한 어드벤처! 아틀란티스는 진짜로 있다!!

며칠 전 밤부터 어디선가 보내온 모스 부호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단어 "핍, 조른, 스트럭스"는 쥘 베른 소설 '해저 2만리'의 주인공들. 그리고 이어지는 신호는 이야기한다. "섬은 진짜 있다" 마치 암호처럼 스티븐슨의 '보물섬',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가 단서로 던져지고, 세 개의 책 속에 등장하는 섬들이 어쩌면 같은 곳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 세 개의 지도를 겹치니 나타나는 경도와 위도가 적힌 좌표!!

그것은 바로, '쥘 베른'의 추종자로 반평생 신비의 섬을 찾아 다니던 할아버지가 보낸 신호였고, 2년 전 연락이 끊긴 할아버지를 찾아 신비의 섬으로 출발한다! 헬기를 타고 섬을 향해 가던 가족은 강력한 태풍을 만나고, 태풍의 눈에 들어가야만 섬에 갈 수 있다는데..

드디어 도착한 이 곳은 바로 아틀란티스! 비밀의 열쇠를 찾는 힌트는 바로 소설 속에 있다!

쥘 베른 소설을 기반으로 한 기이한 상상력 악당보다 흥미로운, 미션을 헤쳐나가는 환상의 어드벤처.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6:20 거울나라의앨리스
8:20 라푼젤
10:10 보이스3
12:30 위자:저주의시작
14:10 캐리비안의해적:죽은자는말이없다
16:30 원라인
19:10 구해줘2
22:00 꾼

◈ 채널 CGV
9:10 걸리버여행기
10:40 스피드2
13:00 플립
14:30 보이스3
16:50 키드냅
18:40 히트맨:에이전트47
20:40 잃어버린세계를찾아서2:신비의섬
22:30 공각기동대:고스트인더쉘

◈ Mnet
5: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
7:10 M morning
8:00 썸바디
9:50 2018 MAMA in HONG KONG 베스트 퍼포먼스
12:10 썸바디 스페셜
13:40 MPD Music Talk(SNS/메신저)
14:30 2018 MAMA FANS' CHOICE in JAPAN
18:00 썸바디 스페셜
19:30 Daily Music Talk(SMS)
20:20 2018 MAMA PREMIERE in KOREA
23:00 인싸채널 체리블렛

스포츠 · 레져

◈ MBC스포츠플러스
10:00 2018 NFL
13:00 <당구스페셜>2018 클루망스 컨티넨털컵
15:00 <당구스페셜>2018 클루망스 컨티넨털컵
17:00 2018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19:00 18-19 프로농구 CLUTCH TIME
19:30 18-19 SKT 5GX프로농구

◈ SBS 스포츠
11:00 2018 AFF 스스카컵 하이라이트
12:00 2018 아시안게임
14:00 2018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15:40 2018 AFF 스스카컵 10분 하이라이트
16:00 18-19 V리그남자부
18:00 주간배구 다이제스트
18:50 18-19 V리그남자부

◈ 온스타일
6:3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7:30 겟잇뷰티 2018
9:40 신혼일기
11:1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3:3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5:30 겟잇뷰티 2018
16:4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7:50 밥블레스유
18:50 식샤를 합시다 3 : 비긴즈
20:10 식샤를 합시다 3 : 비긴즈
21:20 대탈출
22:50 꽃청춘위너
23:50 밥블레스유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1:00 뉴스21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한국경제TV
7: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 라인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4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팔구
21:30 대박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아시아 헌터
13:15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4:15 이주의 법칙
14:45 잠베지 계곡의 사자와 악어
15:45 인도호랑이 쿠말의 여정
16:45 TV 동물농장
19:00 아시아 헌터
20: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21:00 <BEST PICK>지니어스

음악 · 애니

◈ MBC 뮤직
9:00 피크닉 라이브 소풍
10:00 MBC MUSIC HIT SONGS
12:10 쇼! 음악중심
13:30 언더나인틴
15:00 순위의 재구성
16:30 창작의 신
18:00 쇼 챔피언 비하인드
19:00 주간 아이돌

◈ 애니맥스
6:00 바이클론즈 5
7:00 아울은너무 이상해
8:00 포켓몬스터 썬&문
9:00 레인보우 루비
10: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3
11:00 유후와 친구들3
12:00 터닝메카드 W 시즌2
13:00 명탐정코난 시즌3
14: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part2
15:00 소피루비 part2
16:00 레인보우 루비
17:00 헬로 카봇5

◈ JEI 재능방송
6:00 고고다이노 시즌2
7:00 이야기배달부 동개비
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9:00 파워캐치 원다 part2
10:00 뽀롱뽀롱 뽀로로5
11: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3
12:00 라바 시즌3
13: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14:00 유희왕ARC-V
15:00 플레이징 틴스5 part2
16:00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 11기
17:00 안녕! 보노보노
1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D-10 월켐 투 광주 평화의 물결속으로 12:00 KBS 뉴스 12 1: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늬우스 1:50 우리말 겨루기 2:40 팔도밥상 스페셜 3:00 가요무대 4:00 사사건건 5:00 KBS 뉴스5 5:30 동물의 왕국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7 7:40 이웃집 찰스 8:25 여름아 부탁해 9:00 KBS 뉴스9 10:00 시사기획 창 10:50 오늘밤 김제동 11:30 UHD 숨터 11:40 거리의 만찬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아침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퍼퓸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55 살림하는 남자들 2:00 KBS뉴스타임 2:10 생활의 발견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유치원 4:00 그녀들의 여유만만 5:00 다큐멘터리 3일 6:00 KBS경제타임 6:40 2TV생생정보 7:50 태양의 계절 8:30 글로벌 24 8:55 퍼퓸 10:00 퍼퓸 11:10 회사 가기 싫어 2019	6:00 MBC 뉴스투데이 7:50 용왕님 보우하사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50 검법남녀 시즌2 12:00 12 MBC 뉴스 12:25 경성판타지 (울산M) 1:25 꾸러기 식사교실 1:55 2시 뉴스 외전 3:25 에어로버 3: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4: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5:55 생방송 오늘 저녁 6:50 용왕님 보우하사 7:30 MBC 뉴스데스크 8:55 검법남녀 시즌2 10:0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11:10 PD수첩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모닝와이드 7:40 모닝와이드 8:30 수상한 장모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00 SBS 12뉴스 12:50 불타는 청춘 2:00 뉴스브리핑 4:00 접속! 무비월드 5:00 SBS 오뉴스 6:00 영재발굴단 7:00 생방송 투데이 8:00 SBS 8뉴스 8:55 본격 연예 한밤 10:0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30 은혜로운 말씀 7:30 시청자뉴스 7:50 충청남도 영상소식 8:00 뉴스와이드 8:5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9:00 우리동네 생활체육 10:00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 11:00 파인드 맛집 12:00 CMB 뉴스 12:50 시청자뉴스 1:2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1:30 주정민의 스페셜토크 2:00 충남도 행복톡 3:00 CMB뉴스 3:50 충청남도 영상소식 4:00 행복비나리 5:00 남진아의 청춘을 돌려다오 6:00 뉴스와이드 6:50 시청자 뉴스 7:2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7:30 CMB 집중토론 9:00 뉴스와이드 10:00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날 11:00 행복비나리 11:50 충청남도 영상소식	6:00 한국기행 6:20 세계테마기행 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7:30 띠띠뽀 띠띠뽀 7:45 꼬마버스 타요 8:00 딩 동댕 유치원 8:30 엄마 카투리 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9:00 방귀대장 뿡뿡이 9:30 이얍! 스페이스 정글 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 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다큐 12:40 지식채널 e 13:35 뷰티풀 코리아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4:2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요술상자 16:15 방귀대장 뿡뿡이 16:45 딩 동댕 유치원1 17:05 딩 동댕 유치원2 17:15 엄마 까투리 17:30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1 18:05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18:20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2 18:25 호기심 나라 오키도 18:40 생방송 톡! 톡!보니 하니3 18:45 신통방통 공룡슈퍼 18:55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4 19:00 소피 루비 19:30 EBS 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이응노의집, 여름방학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차별화된 미술관 예술현장 교육 경험

홍성군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하 이응노의 집)은 다가오는 여름 방학기간을 활용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이란 단순 체험위주를 넘어서 전시 내용에 연관한 감상활동과 창작활동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전시 콘텐츠를 활용해 학교 교육과 차별화된 미술관의 예술현장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미스터리 다이어리: Mr. Lee Diary〉란 제목으로 열리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6월 개최한 소장품전〈이응노 삶의 여정, 예술로 기록하다〉전시와 연계해 예술작품에 기록된 이응노 삶의 별별 이야기와 함께 상상력을 더한 '화가 이응노 그날의 일기(Mr. Lee Diary)'를 만들거나 나의 '미스터리한 일기(Mystery Diary)'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화가 이응노가 표현에 한계를 두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적인 화구가 아닌 특별한 재료를 통해 창작활동이 진행된다.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전시감상 · 창작활동 · 강연 · 진로탐색 4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예술교육인〈고암아카데미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와 연계된 감상과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표현과 기법에 관한 미술특강과 이응노의집 문화시설을 견학하고 큐레이터와 예술가를 만나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 대상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목 ·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청소년 대상은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한다.

신청은 이응노의집 방문 또는 전화 접수(041-630-9228/9244) 가능하며, 재료비를 포함한 프로그램 비는 무료다.

한편,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에서는 오는 7월 6~7일, 13~14일 주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재료로 자화상을 만드는〈나와 너, 우리 얼굴〉가족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대전시체육회, 대전 최초 여자 사브르 펜싱팀 창단

대전광역시체육회(회장 허태정)가 대전 최초 여자 사브르 펜싱팀을 창단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 1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체육회관에서 박일순 사무처장과 대전광역시펜싱협회 이준형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선수 가족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자 펜싱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체육회 펜싱팀은 지난해 허태정 대전시장(대전광역시체육회장)의 '대전 체육 특화 종목 육성' 당부에 따라 대표 브랜드 종목선정을 거쳐 대전을 전국 최고의 펜싱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창단됐다.

선수단은 현재 대전광역시체육회 우수 선수인 권민아 선수와 서현선 선수 등 4명으로 구성됐으며, 양승환 감독이 이들을 진두지휘한다.

대전광역시체육회 박일순 사무처장은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의 연계육성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팀을 육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펜싱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초석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서천도서관 "책 많이 익어 다독상 받아요"

매월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 다독자 선정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서천도서관은 매월 독서생활화에 앞장서고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 다독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다독자 선정은 한 달 동안 관외 대출권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성인, 중 · 고등, 유 · 초등 3부문으로 나누어 각 2명씩 총 6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다독자에게는 도서관장상과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36명의 다독자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6월에는 성인부문 민○기, 남○자, 중 · 고등부문 윤○훈, 이○리, 유 · 초등부문 민○서, 유○완 학생이 선정됐다.

서천도서관은 매월 다독자 선정 외에도 8월 중에는 '책 읽는 가족' 선정과 12월에는 '2019년 다독왕'을 시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화를 위해 독서퀴즈 이벤트, 사서가추천하는 테마도서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천=이정복기자

세종시, 7월 정책아카데미 일부 일정 변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추진하는 '7월 정책아카데미'의 일정이 일부 변경됐다.

시는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인권, 과연 절대적 가치인가' 강연을 오는 11일 19시로 일정을 변경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에는 정책아카데미가 개최되지 않는다.

나머지 강연은 당초와 동일하게 9일과 16일, 23일 16시부터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다.

9일에는 박준영 변호사의 '인권, 사례 중심으로 쉽게 다가가기', 16일에는 양정훈 작가의 '인권에 대한 오해와 본질'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

23일에는 임병식 고려대학교 죽음교육센터장의 웰다잉, 상실에서 발견하는 인간다움'을 마지막으로 이번 강연을 마무리한다.

7월 정책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시민은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jhle.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044-865-9670)으로 연락하면 된다.

세종=김태선기자

EN.F Total Interior Design 연.에프 대표 손혁건 Mobile 010-8422-6946

건양대 사회봉사센터, 강릉 산불 피해현장에서 구슬땀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묵) 사회봉사센터(센터장 김윤진)가 하계방학을 맞이해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산불 피해지역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충남농협 금산군에 보행보조기 전달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충남도지부와 농협 충남지역본부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 상당의 보행보조기 50대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장학금 지원 등을 꾸준히 실천해 온 나눔축산운동본부 충남도지부와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세종시교육청, 혁신2기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2기 1주년을 맞아 세종교육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7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LX 대전충남본부, 제42주년 창사기념식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제42주년 창사기념일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수 기관 · 직원 표창과 승진자 임용장을 수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농촌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박영욱)는 지난달 28일 청양군 정산면 소재 취약계층 임모(85)씨 집을 찾아 농촌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유류피해지역 어린이 건강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대전 · 충남지부 김민수 본부장(오른쪽)은 지난달 태안보건의료원 허종일 원장(왼쪽)과 태안보건의료원에서 유류피해지역 건강영양조사' 건강검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이념 기독교 정신 구현하고자 16년째 이어온 농촌전도봉사

호서대 기독교학과, 농촌 봉사활동 펼쳐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기독교학과 학생 33명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충남 청양군 장평면 낙지리 일대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기독교학과에서 교육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자 2003년부터 16년째 이어온 32번째 농촌 전도 봉사다.

즐거운 마을을 뜻하는 '낙지리(樂只里)'는 칠갑산 동남쪽 자락에 걸쳐있는 다섯 개 부락으로, 주로 6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12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호서대 학생들은 낙지리가 내려다보이는 장평감리교회(담임목사 김선민)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5일 동안 마치 손주들을 맞이하는 듯이 반가워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함박꽃이 피었다.

이남휘 권사(83세)는 "생면부지의 청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니, 우리가 복 받은 거죠"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호서대학교 대학교회 교우들이 백숙 100명분으로 초청한 마을잔치 등 다양한 행사들은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감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농촌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참여한 간호학과 김종근 교수 외 학생 9명과 물리치료학과 황영인 교수 외 학생 6명은 혈압과 당뇨 검사 및 보행검사와 물리치료 등의 의료봉사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농촌봉사를 인솔한 염창선 교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는 마을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에 왔으며, 이런 일의 중심에 바로 장평교회가 있다"며, "우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목원대,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

목원대 산학협력단(단장 정철호)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 여가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시범 운영사업'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과 아동들이 주말을 이용해 문화예술을 체험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시작됐다.

목원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가족 해체, 비혼족 등 가족 유형의 다변화와 가족 ·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다양한 가족 여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김태선기자

한국-방글라데시 학생문화교류행사

한서대, 방글라데시에서 문화교류

한서대 학생들로 구성된 K-pop 공연단이 방글라데시에서 "한국-방글라데시 학생문화교류행사(Cultural Exchange Program-2019)"를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펼쳤다.

한서대 혁신교육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이 행사에 참여한 K-pop 공연단은 항공관광학과 8명, 실용음악학과 14명 등 모두 22명의 한서대 학생으로 구성 됐다.

이들은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 있는 데포딜국제대학(Daffodil Int'l Univ.)과 유니크국제어학원(Unique Int'l Language Academy)의 후원으로 K-pop을 비롯한 각종 공연을 선보이고 양국 학생들과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함께 했다.

한서대 K-pop 공연단은 매년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 남아프리카에서도 각종 공연과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와 한서대학교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한편, 현재 한서대에는 학부생 9명, 대학원생 9명, 어학연수생 31명(한국어 연수) 등 49명의 방글라데시 유학생이 다양한 학과에 재학 중이다.

서산=김정한기자

1일 오후 4시 대전현충원 복지관에서 거행

제23대 임성현 대전현충원장 취임

1일 오후 4시 제23대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장이 복지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했다.

임성현 신임 원장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및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1983년 국가보훈처에 입문,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장,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보훈선양국 나라사랑정책과장, 보훈예우국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국가보훈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임성현 원장은 취임 사에서 "직원들은 열린 호국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다."면서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과 지침이 있으면 하나하나 바꾸어 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송병배기자

인 사

■공주대

◇ 서기관 ▲기획처 기획과장 임소희 ▲사무국재무과장 최기혁

◇ 행정사무관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지용희 ▲교무처 교무과장 이승열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실장 백광현 ▲산학협력단사업화지원부장 최일호 ▲산업과학대학 행정실장 우희철 ▲교무처학사지원과장 이충화 ▲공과대학행정실장 김가수 ▲입학관리본부입학관리과장 김정희 ▲간호보건대학행정실장 이웅재 ▲정보전산원 정보화담당관 신진호

◇ 행정서기보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과 임현나방서장 류일희(승진)

우송정보대학, 대전시배 전국 색소폰 경연대회 '성료'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 · 국제 색소폰 문화예술협회 공동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은 국제 색소폰 문화예술협회와 공동으로 2019년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6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1회 대전광역시 배 전국 색소폰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이나영 동구의회 의장, 우송정보대학 박경렬 평생교육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본 대회는, 지난 6월 22일 전국에서 몰려든 경연 참가자들에 대해 치열한 예심을 거쳐, 본선에는 초/중/고, 대학생 부문 및 솔로, 중주, 앙상블 등 6개 부문에 54개 팀이 뜨거운 경연을 벌였다.

심사위원장인 강헌구 프로 색소포니스트(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 강헌구 색소폰 가요 애드립 지도교수)는 "2019년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된 색소폰 경연대회라서 더욱 의미가 깊고, 참가자들의 수준이 생각 이상으로 높아 놀랐다"며 "중년의 로망이라 할 수 있는 색소폰 연주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연대회가 진행되는 중에는 본인 소유의 색소폰에 대해 정비를 받을 수 있는 무료 리페어 코너도 개설하여 즉석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김정환기자

'백제와 통하다' 사진전시회 개최

(재)백제세계유산센터가 지난 2015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외 사진 순회전시에 나선다.

이번 전시는 '백제와 통하다'라는 주제로 천 오백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바라보는 자리로 1차 전시는 SRT 수서역에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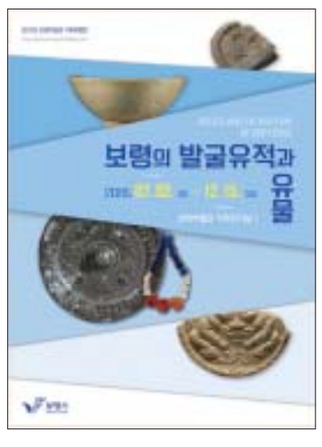
공주 · 부여 · 익산에 위치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모습을 담은 이번 사진전은 (재)백제세계유산센터에 소장중인 서헌강, 김광섭 작가의 작품과 더불어 백제역사유적지구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등 총 34점의 사진으로 구성했다.

정상범기자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제6대 정하명 위원장 당선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제6대 임원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정하명(현 위원장) 후보가 재선됐다.

보령시, 기획특별전 '보령의 발굴유적과 유물' 개최

명천동 유적 등 300여 점 전시… 청동거울 등 최초 공개



보령시는 2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보령박물관에서 기획특별전 '보령의 발굴유적과 유물' 전을 개최한다.

보령박물관은 지난 2017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보령에서 출토된 유물을 귀속 받아 소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명천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첫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소장하고 있는 유물 등 300여 점을 전시한다.

이밖에도 웅천 대창리 유적, 충청수영성, 성주사지의 유물들을 소개하고, 각 유적의 발굴조사부터 유물이 전시되기까지의 여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병윤 문화새마을과장은 "이번 전시회는 보령에서 출토된 유물을 처음으로 모두 공개하는 자리이며, 특별히 어린이 체험공간을 따로 마련해 문화재 발굴조사와 보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까지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람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기자

칼 럼

민생경제 안 챙기는 정치 무슨 의미가 있는가!

황선만 논설위원

요즘 민생경제가 한마디로 말해 엉망이다. 성장률이니, 실업률이니 거창하게 지표를 보지 않아도 시장이나 동네 가게만 나가봐도 경제가 바닥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최근 체감으로 느끼는 서민경제가 최악을 맞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무섭게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추락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그 강도가 갈수록 심각하다. 엊그제 서초동에 가봤는데 4차선 핵심도로변 상가임에도 임차인을 기다리는 빈 상가가 많았다. 인근에 위치한 공인 중개사A씨는 "이 정도 위치라면 과거에는 상가 임대가 나오기 무섭게 새로운 점포가 들어섰지만, 요즈음은 3~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곳이 다반사다" 라고 말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충남도청이 위치한 홍성군의 경우, 소위 명동골목이라고 부르는 핵심 상업지역에도 빈 가게가 줄을 잇고 있다. 홍성의 한 자영업자는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영업은 유지하면서 권리금을 대폭 내려 점포를 내놓은 곳은 일일이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문의조차 없다."라고 한다.

자영업 '붕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자영업 현장에선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지역 경제의 바닥을 받쳐주는 서민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은 항상 힘들었지만, 올해 들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급속하게 내려앉는 것은 경제가 주저앉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제조업 가동률이 내려가는 등 경기 하락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런 지표들보다 훨씬 심각하다.

여기에 한 목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정책 문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하위 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월급이 줄어든 저소득 근로자들이 씀씀이를 더욱 줄이고 있다. 한 마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타격받으면서 밑바닥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심각성을 정치인만 모르는 것 같다. 국회가 두 달 이상 공전해도 서로 내로남불 상대 당 탓만 하고 있고, 정부도 시장에서 먹히는 확실한 처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막말정치폭탄만 쏟아내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정치인 자신의 가계는 먹고사는 문제가지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서두를 필요가 없겠지만, 서민들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 이대로 지속하면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서민경제는 완전히 회복 불능으로 무너질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서로 좌파 우파 이념 전쟁놀이를 멈추고 심각한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머리 맞대고 만들어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안보도 중요하고 치안도 중요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60년대처럼 절대 빈곤은 없다고 하지만, 현대 경제는 한곳에서 막히면 동맥경화증이 일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 막힌 경제를 풀어 물 흐르듯이 잘 흘러 기업의 투자를 유발시키고, 근로자는 취업을 하여 소비가 촉진되어 자영업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정책을 만들어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이 모든 것은 여야 함께 책임 이 있지만, 특히 국정을 맡고 있는 정부여당에게 있음을 명심 하기 바란다.

사 설

최저임금, 한 쪽 희생만 강요해선 안 돼

내년도 최저임금결정의 법정기한(6월 27일)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전체 업종에 동일 적용키로 한데 대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반발로 사실상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을 부담하기 힘든 업종 대해 기준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특정업종의 저임금 상태 고착화 우려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지난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됐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 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노동계 주장만이 수용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노사화합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양보를 했지만 이젠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어 나가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사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치열한 자기주장에 따른 마찰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되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킨 것은 물론 심각한 경영악화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계속되는 한 이런 흐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영세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최소한의 숨통 역할을 해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주요 현안이기도 했다.

물론 노동자입장에서 임금인상은 생존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용자에게 있어서 임금문제 역시 기업의 존폐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최저임금 1%오를 때 마다 일자리 1만개가 사라진다고 한다. 대책 없는 최저임금인상이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임금이 올랐다고 좋아했더니 그 다음 수순이 실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노사가 힘을 더해 경제를 떠받친다 해도 부족할 판에 최저임금 마찰로 인한 갈등이 1년 내내 경제의 핵심이슈가 되며 발목을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 노사가 시장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한쪽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강력히 처벌해야

행안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인사운영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은 반드시 지자체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고 개별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다. 채용비리 연루 직원은 징계경감 금지나 승진제한 등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채용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도 외부위원 위촉을 할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적용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안 적용대상 기관은 전국 151개 지방공사와 공단 702개 지방 출자 · 출연기관으로 도내 모든 공공기관 역시 대상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게된 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말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가 공정성 규정 강화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내용의 징계를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국 634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사원 채용과 관련된 감사에서 채용과 관련된 비리 62건을 포함해 총 114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고 도내에서도 수십 건의 위법사항이 드러나 현재 사법당국에 고발됐거나 징계처분이 의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가 터질 때 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반복되는 채용비리를 차단하기엔 역부족 이었다. 내놓는 대책보다 비리 수법이 한발 앞서 갔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지자체장이 바뀔 때 마다 산하기관의 장이 교체되고 이어지는 채용과정에서의 내 사람 심기는 조직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며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시된데 따른 필연적 결과임은 물론이다. 이들을 감시, 감독해야할 지자체장의 최측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인사들이 산하단체의 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겠느냐는 비난은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9대 생활적폐중 하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정해 특별관리 하겠다고 나설 만큼 우리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는 심각하다. 한 명의 부정채용은 또다른 한 명의 억울한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마지막 보루라 믿고 지원하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조차 부정과 편법이 난무해선 안된다.

기 고

병무행정 변화의 시작, 제안

오유미 병무민원상담소

"안녕하십니까? 병무민원상담소입니다."

오늘도 병무민원상담소의 활기찬 하루가 시작된다. 병무민원상담소는 병역이행 전반에 대해 전문상담사가 상담 서비스를 하는 병무청 대표 상담기관으로 국민과 실시간 상담하며 소통하는 병무행정 최접점의 기관이다.

병무민원상담소는 '정확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을 목표로 직접상담과 ARS, 인터넷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상담을 통해 병무행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병역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편의 도모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병역이행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제도변경사항, 이슈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교육을 받으며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업무 담당자의 자세로 상담에 임하고 있다.

많은 양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민원 불편사항 발생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민원인이 잘못 인식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또한 입장을 바꾸어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불편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원의 고민이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제안제도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상담소는 두 가지 체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상담직원이 민원 상담시 발생한 불편 · 불만 내역을 상담시스템에 입력하면 전화상담 총괄계에서 유형별로 내용을 분석 · 모니터링 하여 즉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정책부서와 협조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매주 본청과의 회의에서 제도개선 안건을 제출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직원이 상담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주 계별스터디(자율 공부모임)에서 상담내용을 공유하여 동료들과의 토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이 도출되기도 한다. 또한 장기 반복민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제도개선 발굴단」연구모임에서도 민원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 불편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불편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는 평소 민원 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개선하려는 주인의식이 없다면 쉽게 다가갈 수 없다. 업무에 부과되는 또 다른 부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업무 외 별도시간에 제안활동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담소에서는 상담시스템에 바로 입력함으로써 적극적인 제안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불만민원과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분류하여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입력하는 직원에게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제도개선 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좋은 제안은 거창하게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담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불편함을 해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각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통해 조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숙성되어 멋진 제안이 도출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다. 혹여 제출한 제안이 바로 채택되지 않았다 해도 시도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 되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병무민원상담소는 앞으로도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중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담과정에서 도출되는 소중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이고 건강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주시, 2019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하반기 주요 시정 방향 및 업무계획 점검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8일까지 김정섭 시장을 비롯한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에 걸쳐 201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상반기 시정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정책방향 및 업무계획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정책자문위원과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5급 전보 및 승진 의결자가 보고회에 참석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올 하반기 100대 공약사업 중 2019년 완료목표인 51건의 공약사업 완수와 제 2금강교 건설, 호텔 및 기관 유치 등 지역현안사업의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출범 △푸드플랜 기반마련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일자리 및 인구 ·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공주사랑 전자상품권 '공주페이' 발행 △기적의도서관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여성친화도시 · 가족친화도시 · 문화도시 지정 △생태놀이터 조성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의 주요사업을 점검하고 더 나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섭 시장은 "지난 민선7기 1년 동안 시정 혁신을 위해 시행했던 많은 시도를 시민과 전문가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본 뒤 미흡한 점을 되돌아봐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당초 일정보다 지체되는 사업의 원인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남은 민선 7기 3년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동구, 하소친환경산업단지 기업대표들과 상생 '맞손'

황인호 청장의 민선7기 2년차 첫 공식행보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일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하소친환경산업단지 입주기업대표들과 생생한 소통간담회를 갖고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산업계와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나가고자 마련됐으며, 인적 · 물적 · 행정적 교류 및 지원을 위해 민 · 관이 노력하는 사항을 담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도 체결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는 '발로 뛰는 일자리지원센터 기업지원단' 홍보를 통해 참석한 15명의 하소단지 기업대표들과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동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상생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구는 오는 8일에는 남대전 종합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대표들과도 소통간담회와 협약식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의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민선7기 2년차 첫 공식행보로 지역기업대표들과 자리를 마주한 황인호 동구청장은 "지역기업대표들과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동참하겠다"며 "지속적인 공유와 협력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어나가자"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요망.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 현 정	회 장	김 성 구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닥터케어 GOLD

숙취해소

말이 왜 필요합니까?

소비자 상담실 1899-1677

음주 전·후 각1포

미투 me too 술에 너 이상 당하지 맙시다!!

숙취해소전문기업 닥터케어

대표 조성덕